소년단

1964.7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7
1964

소년단

7 1964

차례

약속은 귀중합니다

박 경 옥

사람들은 혼자 동떨어져 살 수 없고 언제나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사업하고 생활해 나가는 데는 서로 자각적으로 지켜야 할 일정한 약속과 규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나 질서 있게 진행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누구나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도덕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동무들에게 약속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속이란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서로 맺는 언약이나 맹세를 말합니다.

예로부터 조선 사람은 례의 도덕을 훌륭히 지키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믿으며 화목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귀중히 여기였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바로 약속이 이처럼 귀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진실한 동무를 삼는 데서도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잘 지키는가를 보게 된답니다.

만약 몇 번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진정한 동무로서 믿음이 멀어지게 되고 자연히 그 동무와는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여 보십시오. 혁명 사업을 위하여 조직 앞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고는 아무런 리유 없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만큼 조직과 혁명 앞에 큰 손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동무를 어떻게 믿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약속은 조직이나 동무들 사이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부모님들, 이웃 어른들 그 누구와 한 약속이건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래 동생들과도 무슨 약속을 하였다고 하면 꼭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크게 량심에 가책을 받지 않거나 거짓말로 굼때려는 일은 아주 옳지 못 한 태도입니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0년대 항일 빨찌산들과 아동단원들은 간악한 원쑤와 싸우는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명 동지들과의 약속을 어김 없이 지키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렬한 것은 굴종과 변절, 거짓말이다. 잘못은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말은 용서 못 한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아동단 규률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아동단원들은 그 누구와 약속한 일이 있으면 자기 자신의 일을 미루면서까지 지키였습니다.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는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약속된 곳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만약 부득불 약속을 지키지 못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약속한 동무에게 알리였습니다. 아동단 조직에서 자라 장차 훌륭한 혁명 투사가 되여 왜놈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찾을 것을 맹세한 아동단원이 어찌 자기를 길러 주는 조직과 혁명 동지를 속이거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동단 생활을 하던 때 길림성 요하현 소남처 서린자촌에는 한 후남이라는 아동단원이 있었습니다. 후남 동무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 열 세 살에 석 창곤이라는 집에 민며느리로 팔려 왔습니다. 조직에서는 후남 동무를 오래 동안 잘 교양하여 아동단에 받아 들였습니다. 후남 동무는 자기의 부모나 시부모들에게 아동단에 입단하였다는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는 조직에서 주는 위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해내였을 뿐만 아니라 동무들 사이에 약속한 일은 어김 없이 지키였습니다. 우리는 후남 동무가 조직이나 동무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약속을 위반하는 것을 보지 못 하였습니다.

나는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때 우리 아동단에는 박 동무라는 한 아동단원이 있었는데 그가 몹시 앓게 되여 하루는 그에게 약초를 캐다 달여 주자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 10시에 모여서 《세신》이라는 약초를 캐 오기로 하고 헤여졌습니다. 장소는 큰 바위 밑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후남이가 빨리 설겆이를 끝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시어머

니가 함지박에 빨래'감을 담아 놓으며 점심 때에는 비가 내릴 것 같다면서 아침녘에 빨래를 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엄한 시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후남이는 그저 《예!》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무들과 약속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 딱한 일이였습니다.

함지박을 이고 빨래터까지 나온 후남이는 시어머니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려고 집으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새 벌써 20 리나 되는 친척'집으로 나들이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후남이는 약속한 일을 다음 날로 미루자고 김 동무네 집과 우리 집으로 뛰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김 동무와 나는 이미 약속한 곳에 와 있은 때였습니다.

(동무들은 나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가… 또 박 동무의 병은…)

후남이는 빨래가 담긴 함지박을 빨래터 주변의 잔솔밭에 감추고 동무들과 만나기로 한 곳으로 뛰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기다리다 못 해 우리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약속한 대로 먼저 떠났다는 암호로 바위에다 표식을 해 놓고 떠났던 것입니다.

후남이는 우리들을 만나지 못한 채 되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산으로 떠난 우리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린 네가 약속한 시간이 되여도 오잖으니 또 엄한 시어머니 때문에 나오지 못 했으리라고 생각했어.》

후남의 이야기를 듣고 난 김 동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못 지킬 형편이면 그 사정이라도 알려야 될 것 같애 달려 왔지 머.》

후남의 말은 나와 김 동무를 몹시 감동케 하였습니다. 이 날 후남이는 약초 있는 곳까지 온 이상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끝내 우리와 같이 약초를 캐 가지고야 돌아 왔습니다. 우리는 저녁 때까지 후남이를 도와 빨래를 해 주고야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아동단원들은 모두 후남이처럼 약속한 일은 꼭 지키였습니다.

약속은 사람들이 살아 나가는 데서 이처럼 중요합니다.

동무들은 장차 우리 나라의 주인이 될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모든 물품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도덕이 가장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법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야 할 도덕에 의하여 움직이며 행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산주의적 도덕 품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무들은 약속을 귀중히 여기는 품성을 어려서부터 키우십시오. 그리하여 장차 훌륭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십시오.

《동무들! 피를 즐기는 흉악한 미제 원쑤놈들을 똑똑히 보시오.

간악한 원쑤들을 철저히 섬멸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이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동무들! 인민의 원쑤를 천백 배로 갚읍시다. 미제 승냥이들에게 죽음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강 호영 영웅은 팔과 다리가 떨어지고도 입에 수류탄을 물고 적진에 굴어 들어 가기 전 전우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해바라기

리 호 일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당을 따르는 용감한 혁명 전사들
우리의 형님과 누나들 이제는
자랑찬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휘황한 앞날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원수님의 부름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대회장에서 일터로 배움터로 돌아 온
형님 누나의 앞가슴에 《사·로·청》의
휘장이 빛나네.

바람이 세차고 파도가 거칠어도
언제나 빛나는 태양을 향하여
아름답게 꽃피는 이 땅의 청춘
사회주의 건설장에 벌써 떨쳐 나섰네.

평양—신의주 간 500 리 철'길 우에
세상을 놀래우는 《철도 전기화 속도》를 높이며
압록강반에 《비단 궁전》을 덩실 일떠세우고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쇠'물 폭포 같이 뽑아 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형님 누나들
어렵고 힘 든 일의 앞장에 나섰네
과학과 기술의 고지로 높이 오르며
지, 덕, 체를 갖춘 선구자로 자라거늘

아, 해바라기, 금'빛 해바라기!
슬기롭고 씩씩한 우리의 오빠 언니들
빛나는 혁명 전통을 이어 락원을 꾸리는
영광스러운 로동당의 후비대여…

조국의 새날을 어깨에 메고 가는
오빠와 언니들 새 세대를 이어
미더운 교대자로 자라 나는 우리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항상 준비하거니

자애로운 어버이 원수님의 부름 받들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 해바라기처럼 활짝 꽃피겠네

대회에서 돌아온 형님의 이야기

김 병 익

방과 후입니다.

학교에서 돌아 온 영철이네 반 동무들은 책가방을 집에 들여다 두기가 바쁘게 아빠트 마당'가로 달려 나옵니다.

《형님! 잘 다녀 오셨어요?》

손을 들어 척척 소년단 인사를 하며 아이들은 백양나무 밑 긴 의자에 앉아 쉬고 계시는 영철이 형님에게 와락 달려 가 매달립니다.

《그래, 그 동안 공부들 잘 했느냐?》

열철이 형님은 민청 제 5 차 대회에 참가하셨다가 오늘 아침차로 돌아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두 이리 와 앉아라! 어서…》

형님의 앞가슴에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새 휘장이 빛났습니다.

《이게 새 휘장입니까?》, 《야!》

아이들은 저마다 휘장을 들여다 보느라고 야단 법석입니다.

《형님! 대회에 가셨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네.》

동무들은 형님의 손목을 그러당기며 다가 앉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할가?》

형님은 대회의 나날이 모두 감격스러운 이야기들 뿐이여서인지 미처 이야기의 실머리를 찾지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을 뵈운 이야기부터 해주세요!》

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감개 무량한 얼굴로 말씀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김 일성 원수님을 직접 모시고 회의를 했어요. 그리구 원수님을 모시고 전국 청년 학생 써클도 보고 영광스럽게도 함께 기념 사진까지 찍었어요.》

《야!》

동무들은 모두 부러운듯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문에서 봤겠지만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은 지난날 우리 민청이 해 온 일을 높이 치하해 주시고 앞으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셨단다.》

《야!》

형님은 대회의 나날들을 더듬으시는듯 잠간 먼발치로 뭉게뭉게 피여 오르는 제강소 굴뚝의 연기를 바라 보시더니만 다시 입을 여시였습니다.

《이 번 대회에서는 지난 18 년 간 당의 가리킴 따라 민청이 해 온 일을 총화하고 민청 앞에 나서는 새로운 혁명 과업들을 토의했단다. 그리고 민청을 더 혁명적이고 더 전투적 조직인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할 것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 번 대회에서는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조선 청년들의 단결된 힘을 온 세상에 다시 한 번 시위했단다.》

형님은 반 동무들을 둘러 보시며 신이 나서 힘 있게 말씀했어요.

《형님! 민청을 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하게 됐나요?》

반장인 영철이가 까만 눈을 되록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렇지, 너희들이 그걸 물을 테지.》

형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듯이 빙그레 웃으시며 《민청이 창립된 때로부터 얼마라고 했지?》하고 아이들을 둘러 보셨습니다.

《18 년입니다.》 눈군가가 선뜻 대답했습니다.

《옳다, 18 년이거든. 그 동안 우리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고 우리 나라 청년들의 처지가 어떻게 달라졌니. 또 민청 사업은 얼마나 발전하구?…그러니까 민청 조직도 여기에 알맞게 발전돼야 하잖겠니?》

형님은 이렇게 허두를 떼시고 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자요. 우리 나라에서 이제는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 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 전에는 도시와 농촌에 개인 상인, 수공업자, 개인 농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적으로 개조 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나라 청년들이 누구나가 다 사회주의 근로자가 됐거든. 이렇게 되니까 그 전에는 서로 계급적 처지가 다른 여러 계층의 청년들로 이루어졌던 민청이 오늘은 로동 청년을 핵심으로 하고 근로 농민 청년, 근로 지식인 청년, 근로 인민 출신의 학생들로 이루어지게 됐거든. 거기에다 당의 끊임 없는 교양을 받구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구,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사상 수준도 아주 높아지고 문화, 기술 수준들도 높아졌단 말에요. 그래 지금 민청 앞에는 청년들을 당 주위에 더 굳게 단결시켜서 우리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그 역할을 한층 높여야 할 과업이 나서게 됐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민청을 더 혁명적이고 더 전투적인 조직으로 개조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번 대회에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개조한 거지요. 알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동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이 번 대회에서 민청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으로 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마는이처럼 똑똑하게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지.》

형님은 팔뚝시계를 한 번 들여다 보시고 나서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조국의 앞날을 걸머지고 나갈 믿음직한 일'군으로 자라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언제나 당의 령도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우리의 행복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요. 당에 충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서 당을 받들고 당이 내세우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것을 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일하며, 언제 어떤 바람이 불어

와도 털끝 만치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해 싸우는 정신을 키워야 한단 말이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애?》

《당 정책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학습해야 합니다.》

《잘 대답했어요. 역시 모범 분단의 소년단원들이 다르구만…》

형님은 동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하고 언제나 당의 사상으로,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끊임 없이 단련해야 합니다. 어디 로동 계급의 사상이란 어떤 것인지 누가 대답해 봐요.》

《저, 지주, 자본가를 때려 부시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사상입니다.》

송식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 대답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구만…》

형님은 송식이가 매우 기특해 보이시는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김 일성 원수님은 맑스-레닌주의 학습도 잘 하고 당 정책 학습을 잘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구 또 오늘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난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았는가도 알아야 하고 혁명 전통 학습도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얼마나 억누르고 착취하였는가를 알아야 하며,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와 그 앞잡이 놈들의 발'굽 밑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구 우리는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와 이 행복한 생활이 지난날 원쑤와 싸운 혁명 선배들의 피로써 이루어진 귀중한 것임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그래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공산주의 건설자가 되며 당이 내놓은 혁명 과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계속했어요.

《이 번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로동을 사랑해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언제나 힘 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 서서 자기의 있는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고 하셨어요.

원수님께서는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꾸준히 참되게 일하며 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 없이 단련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김 일성 원수님은 일하기를 싫어 하고 놀고 먹는 것은 지주나 자본가와 같은 착취 계급의 사상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미워 하며 배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어때요? 동무들은 다 로동을 사랑하지요?》《예!》 모두 힘 있게 대답하는데 송식이만은 머뭇거리며 어쩐지 먼발을 바라 보는 것이였어요. 아마 그는 지난날 반과 분단에서 더러 로동을 즐겨하지 않는다고 동무들의 충고를 받던 일이 생각 나서 그러는가 봐요.

《그래요. 원수님의 말씀 대로 어려서부터 로동을 사랑해야 장차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되거든요. 원수님은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자면 반드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도 청년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꾸준히 과학기술을 배우며 누구나가 다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형님! 형님네 작업반에는 기사, 기수가 얼마나 되나요?》

언제나 엉뚱한 소리를 하기 좋아 하는 순철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는 지금 기수가 3 명인데 이제 7 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모두가 기사, 기수가 될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다.》

《그 때는 형님도 기사가 되나요?》

《글쎄 그 때 가 봐야 알지, 하하하…》

송식이가 묻는 말에 형님은 다시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구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은 나라의 주인답게 자기 개인의 재산보다 공동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공장, 광산, 농장, 어장 할 것 없이 모두 사랑하며 학교, 병원, 도서관, 극장도 애호하며 자기 나라의 산과 강, 한 그루의 나무, 한 포기의 풀이라도 다 인민의 것으로 아끼고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리와 마을, 직장과 학교, 가정을 다 깨끗하게 꾸리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구. 그러고 보면 우리 마을도 좀 더 잘 꾸려야겠지?》

형님은 새삼스럽게 느끼시는듯 아담하게 꾸려진 꽃밭들이며 잎이 무성하게 퍼진 무궁화 나무들을 휘둘러 보셨습니다. 그 바람에 애들도 따라 바라 보았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이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는 데서도 앞장 서며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조국을 굳건히 지키는 데도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새 사회를 걸머지고 나아갈 우리 청년 학생들과 소년들이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원수님은 공부를 잘 하자면 학습 규률을 강화하고 학습 열의를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하며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며 공장과 농촌의 청년들이 모두가 기사, 기수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구 청년들은 문학과 예술도 알아야 하고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문학 서적도 많이 읽고 직접 문예 활동에도 즐겨 참가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구 또 원수님은 청소년들이 공산주의 도덕 품성이 높은 사람으로 되라고 하셨어요.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버리고 집에서는 부모 형제들을 사랑하구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동무들을 사랑하구 사회에 나가서는 인민을 사랑하구 언제나 어른을 존경하고, 겸손하고 례절 바른 사람이 되라고 말이지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형님은 잠시 말씀을 끊으셨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구 이 번 대회에서 김 일성 원수님은 남조선 청년들과 손잡고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을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시켜야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나라 청년들과 어깨 겯고 제국주의와 그의 앞잡이 수정주의자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형님은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이처럼 차근차근 들려 주셨어요.

반 동무들은 형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칠세라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도 더 소년단 생활을 잘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은 당의 후비대이고 소년단은 또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교대자가 아니냐! 장차 너희들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 될 테지? 그러자면 지금 소년단 조직 생활을 잘 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최우등생이 되고 모두가 〈모범 소년단〉, 〈모범 분단〉의 소년단원이 되여야 한다.》

반 동무들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기'발을 추켜 들고 당이 부르는 새로운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형님, 누나들을 따라 자기들도 씩씩하게 배우며 준비해 나아갈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더 할 말은 많다만 오늘은 이만하자. 그러다 보니 너희들에게 첫 귀환 보고를 한 셈이구나. 그럼 난 우리 작업반 동무들한테 가 봐야겠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반 동무들은 형님께 손 들어 인사를 하고 모두 헤여졌습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의 부모는 형제를 남겨 놓고 세상을 떠났다. 동생 흥부는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아주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였다.

흥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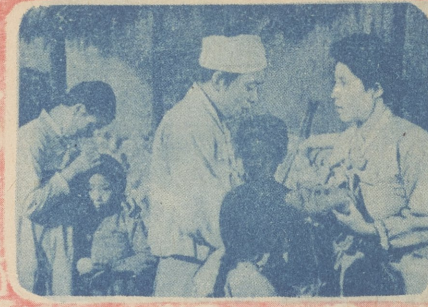
글—변 병순　　사진—함 준서

1) 놀부는 동생 흥부와 그의 어린애들까지도 일을 부려 먹었다. 자기는 배불리 먹고 놀면서도 어린 복남이를 《은밥 딜때 같은 자식》이라고 욕을 하며 일을 시켰다.

* 은밥딜때 같다는 말은 밥딜때처럼 일은 아니 하고 밥만 먹는다는 뜻이다.

2) 하루는 흥부의 아들딸들인 복남이, 복실이, 복성이가 아버지가 산에서 따다 준 다래를 먹고 있었다.

이것을 본 심술 사나운 놀부의 처는 《뭐냐? 또 들 훔쳤구나.》하고 애들의 다래마저 빼앗아 치웠다.

3) 어쩌나 고약한 놀부였는지 부모님의 제사를 치르는 데 종이에다 《시루떡》이니 《갈비찜》이니 하고 써 놓고 제사를 지냈다. 바람에 종이들이 날아나 복남의 발에 밟히자 트집을 잡아 흥부에게 불효 자식을 길렀으니 《썩 물러 가라.》고 야단쳤다.

4) 끝내 흥부 일가는 놀부의 집에서 쫓겨 났다.

그러나 놀부의 머슴인 마당쇠와 하녀들은 흥부 일가를 불쌍히 여겨 쌀 한 되와 주먹밥을 마련해 주었다.

5) 놀부는 흥부 일가가 집을 떠나 간 즉시로 마당쇠를 부르더니 《저 거지떼들이 갔으니 집 안팎을 말끔히 쓸어 내라.》고 호령하였다.

놀부를 더러운 놈으로 생각한 마당쇠는 일부러 마당을 쓸어 놀부에게 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6) 놀부네 집에서 쫓겨난 흥부네는 산'비탈에 초막을 짓고 풀뿌리를 캐 먹으며 가난하게 살았다. 흥부는 견디다 못해 쌀을 좀 꾸어 달라고 찾아 갔다. 그러나 놀부는 《듣기 싫다. 네 팔자가 그런 걸 내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당장 돌아 가라고 하였다.

7) 놀부는 쌀 한 되'박, 돈 한 푼 주지는 않고 오히려 홍부를 물푸레 나무로 마구 때리였다.

마당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으며 홍부는 참다 못해 일어 나 《형님, 안 줄테면 말 것이지 이게 어디 형제 간에 의리가 됐습니까.》라고 하면서 대들었다.

8) 쌀 대신에 매를 맞고 돌아 온 홍부는 고개를 넘다가 도적 무리를 만나 쌀을 빼앗겼다고 안해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안해는 속지 않았다.

《한 피'줄을 이은 동생인데…》 그럴 수 있는가고 하면서 흐느껴 울었다.

9)홍부는 관청에 찾아 가 곡식 몇 말만 꾸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가에서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꾸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김 부자 대신 매를 맞으면 돈 서른 량은 벌 수 있다고 선돈 열 닷량을 손에 쥐여 주었다.

10). 영문에 가서 김 부자 대신 매 맞기로 약속하고 선돈을 받아 들고 온 홍부는 《여보 돈이요, 돈》 하면서 안해에게 돈을 주었다.

그의 안해는 처음 쥐여 보는 돈을 보고 몹시 기뻤다.

11) 홍부는 매를 맞지만 애들이 굶지 않게 되였으니 좋다고 하였으나 홍부의 안해는 《내 눈에 흙이 들어 가기 전에는 못 보내겠다.》고 하며 굳이 말리였다.

12) 홍부는 영문 안'방에서 매맞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농민을 만나 이야기하였다.

그 농민은 《매 한 대에 두 량씩》에 팔리워 왔으나 자기는 그보다 눅게 한 량에 팔려 왔고 똑같이 김 부자의 매를 맞으려 온 것을 알게 되였다.

13) 그만 어이 없이 된 홍부는 굶어 죽는 한이 있드라도 더러운 매를 맞지 않으려고 결심하였다. 도사령은 홍부의 등을 밀어 매 맞으러 나가라고 했다. 그러나 홍부는 《누가 죄를 지은 줄 아시오.》 하며 돈을 던지고 돌아 오고 말았다.

14) 홍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결심하였다. 홍부의 일가는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무더운 날도 마다하지 않고 김을 매였다.

15) 그러던 어느 날 흥부는 뜻하지 않게 처마 밑의 제비 둥지에 뱀이 올라 가 제비 새끼의 다리를 물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 어질고 착한 흥부는 제비의 다리에 약을 바르고 당사실을 감아 주었다.

16) 가을이 되자 제비는 강남으로 날아 갔다.
흥부네 집안 사람들은 《부모 형제를 다 잃었어도 끝까지 살아서 너만이라도 고향에 돌아 가거라.》하고제비의 행복을 빌며 바래 주었다.

17) 이듬해 봄, 강남 갔던 제비는 또다시 찾아 왔다. 제비는 입에 박씨를 물고 왔다.
흥부네 식구들은 반가이 제비를 맞았다. 그리고는 박씨를 물고 온 제비를 신기하게 여기며 바라 보았다.

18) 흥부는 제비가 물어 온 큰 박씨를 좋은 땅을 골라서 심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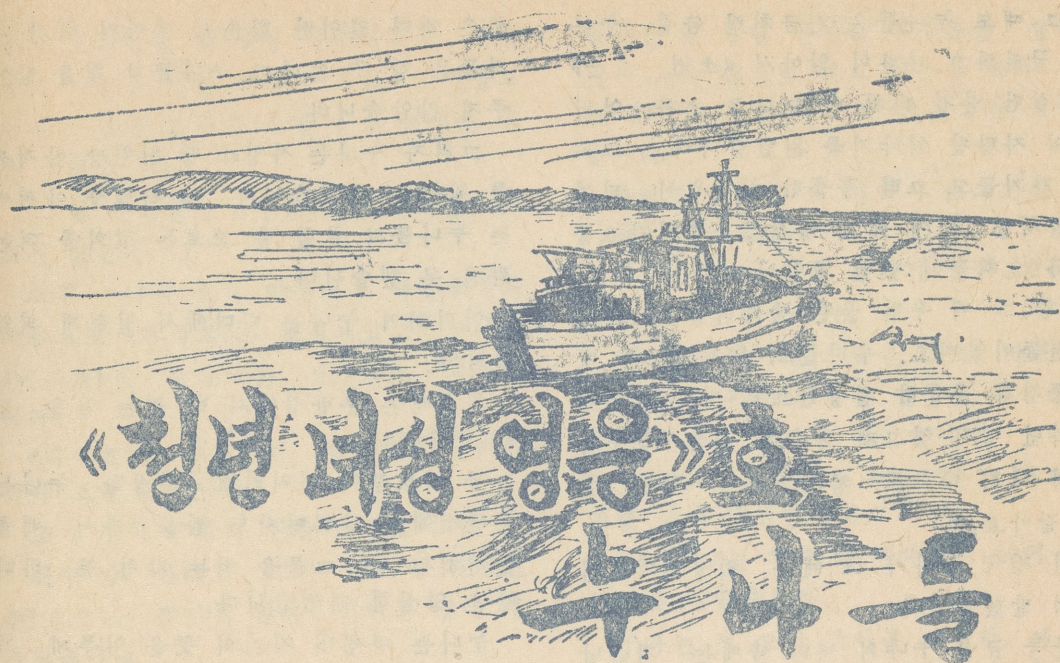
《청년 녀성 영웅》호 누나들

조 병 권

그림 지 창 렵

부두'가는 고기 잡이를 떠나는 배들로 들끓였습니다.

붕—붕—고동 소리가 이 배 저 배에서 련달아 길게 울리고 여기저기서 기계'배의 발동기 소리가 바다를 누를듯 요란합니다.

《청년 녀성 영웅호》의 누나들도 고기 잡이를 떠날 준비에 바빴습니다.

《선장 동무가 와요—》

누군가가 고함치는 바람에 배에서 출발 준비를 서둘던 누나들은 일시에 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청 제 5 차 대회에 참가하였던 선장인 장 금실 누나가 돌아 온 것입니다.

누나들은 금실 누나를 둘러 싸고 모여 앉았습니다.

《…이 번 대회에서도 원수님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진해 맡아서 훌륭히 일했다고 하시면서 높이 치하해 주셨어요. 원수님의 치하를 받으면서 나는 우리들이 한 일이 너무나도 적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 했어요. 어떻게 일하면 당과 원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큰 신임과 기대에 보답할 수 있을가고 생각하느라고 말이예요…》

금실 누나는 대회에서 보고 들은 감격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장 동무한테서 5 차 대회 소식을 듣고나니 4 차 대회 때의 일이 생각나는군요.》

부선장 백 정숙 누나가 문득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민청 4 차 대회 때만 해도 여기에 앉은 부선장인 백 정숙 누나, 기관장인 현 정숙 누나, 무전수인 김 금자 누나, 학습 강사인 유 영자 누나들은 다 같이 평북도 신의주시 남송 중학교 단에서 소년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살며 모두 같은 학년에서 공부한 누나들은 무척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 때도 누나들은 지금처럼 금실 누나를 둘러싸고 나란이 앉아서 《소년 신문》에 실린 민청 4 차 대회 대표 오빠, 언니들의 자랑찬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훌륭한 민청원이 되여 그들처럼 민청 대회 대표로 뽑히자고들 한바탕 떠들어 댔던 것입니다.

《참, 그 때 우린 붉은 넥타이를 맨 소년단원들이였지요. 우리들도 4 차 대회 대표들처럼 훌륭한 민청원으로 되자구 이야기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실 동무는 5 차 대회 대표로 참가했오니…정말 꿈만 같아요.》

현 정숙 누나가 그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득 금실 누나의 머리 속에는 지난날의 잊을 수 없는 가지가지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이였던 누나는 1958년 3월 영예롭게도 민청원으로 되였습니다.

민청 맹원증을 가슴에 품은 누나는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없을가고 늘 생각했습니다.

(졸업하고 비단 짜는 방직공으로 될가? 아니면 백과 무르익는 과수원을 가꾸는 원예사가 될가?…)푸른 꿈이 누나의 가슴에서 나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당은 청년들을 바다로 불렀습니다.

(바다에 나가 무진장한 바다 자원을 개척하는 일은 얼마나 보람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누나는 당의 부름을 받들고 바다로 나가 바다의 정복자로 될 것을 결심했습니다.

누나는 졸업하자 백 정숙, 현 정숙, 유 영자, 김 금자 누나들과 함께 룡암포 수산 사업소로 찾아 갔습니다.

교복 차림에 단발머리를 하고 간 누나들의 모습을 훑어 보던 사업소의 아저씨들은 바다 일이란 힘들고 멀미가 나서 녀자들은 할 수 없다고 누나들의 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누나는 사업소 당 위원장 아저씨를 찾아 가 졸랐습니다. 당 위원장 아저씨는 누나들의 굳할 줄 모르는 결의를 더는 꺾지 못 했습니다.

이리하여 누나는 바다에서 일하게 되였습니다.

처음에는 운반선에서 밥 짓는 일을 말아 했습니다.

꼭 어로공이 되리라고 결심한 누나는 운반선에서 일하면서도 짬을 타서 배를 운전하는 법, 그물을 치는 방법 등 바다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누나는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게 되였습니다. 누나가 너무나 어로공으로 돌려 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사업소에서는 그물 고기 잡이 배에 타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기관선을 타고 멀리 바다로 고기 잡이를 나가는 누나의 기쁨이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기쁨은 가뭇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 와서 배를 공중에 들었다 놓을 때면 더럭 겁도 났지만 그보다도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배멀미였습니다. 한때 누나는 어로공으로 돌려 달라고 조르던 자신을 후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이내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지, 바다를 정복한다는 사람이 이쯤을 못 견디여서…나는 민청원이 아닌가!)

누나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바다에 점점 익숙되여 갔습니다. 이제 더는 겁도, 멀미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남포 수산 사업소에 오시였던 김 일성 원수님께서 녀성들도 기술을 배워 선장도 되고 기관장도 되라고 하신 교시를 전달 받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녀성호》를 조직할 수 있지 않는가?)

그후 누나의 뜻은 이루어져 사업소에서 처음으로 《녀성호》가 조직되였고 누나는 《녀성호》의 영예로운 선장으로 되였습니다.

《녀성호》는 매일처럼 만선기를 날리며 돌아 오군 했습니다.

조기 잡이가 닥쳐 왔을 때였습니다.

해주 앞 바다로 조기 잡이를 나갔던 《녀성호》는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에 부닥쳤습니다.

목적한 어장에 나가 지키고 있던 누나는 조기떼가 딴 어장으로 밀려 든다는 소식을 받고 급히 그리로 옮겨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곳은 바다가 너무 깊어서 닻이 바다 밑에 미치지 못 하여 배가 파도에 밀리였습니다.

누나는 닻줄을 잇고 쇠뭉치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녀성호》 앞에는 또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조기떼를 만나 한참 맹렬한 전투를 하다가 그만 암회(그물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그물 밑부분에 달아 놓는 쇠불이나 참나무 토막)를 부러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그물까지 몽땅 찢어졌습니다. 부러진 암회를 잇자면 륙지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기떼를 다 놓치고 말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면 누나들은 맨손으로 무기를 만들어 내여 원쑤를 친 항일 빨찌산 투사들을 생각했고 자기의 몸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의 승리를 보장한 리 수복 영웅을 생각했습니다.

부러진 암회를 배 안에서 고치기로 누나들은 결심했습니다.

배 안에서는 민청 회의가 열리고 곧 분공이 진행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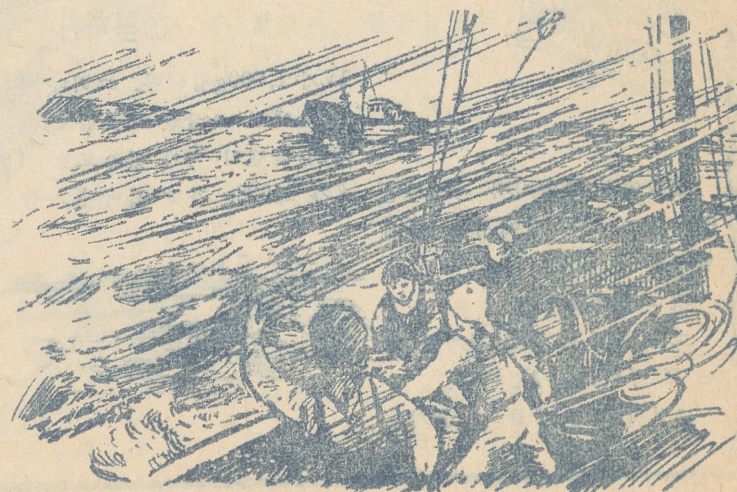
한 패는 찢어진 그물을 깁고, 다른 패는 숯불을 피우고 쇠를 달구어 나사를 만들어 부러진 암회를 이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날 밤 누나들은 8 톤의 조기를 잡아 내였습니다.

《녀성호》는 해주 앞 바다에서 40여 톤의 조기를 잡았습니다.

누나는 첫 고기 잡이를 시작한 때로부터 7 개월 후인 4 차 당 대회까지 년간 계획을 170%로 실행하여 당 대회에 높은 로력적 선물을 보냈습니다.

바다 우에서는 이렇듯 훌륭히 일한 누나를 조선 로동당원으로 받아 들이는 당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누나는 로동당원으로 입당하였습니다.

(당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물과 불 속이라도 뛰여 들리라! 이리하여 당과 원수님의 두터운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리라!)

누나는 몇 번이고 마음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누나는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하여 먼 바다로 나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누나는 200 마력 이상의 큰 저예망선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던 먼 바다에 30 마력 안강망선에 작은 저예망을 설치하고 나갔습니다.

단숨에 배를 삼킬듯한 파도가 달려 들었습니다. 갑판 우에 그 대로 서서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는 허리에 바'줄을 매고 동무들의 앞장에 섰습니다.

이리하여 누나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였습니다.

누나는 영예롭게도 1962년 2월에 열린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에 참가하여 토론까지 하게 되였습니다.

누나의 토론을 들으신 김 일성 원수님께서는 사나운 파도와 용감히 싸우면서 훌륭히 일한 누나를 높이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탄 배의 이름을 《조선 로동당의 딸, 청년 녀성 영웅호》라고 지어 주시였습니다.

바다의 정복자—용감한 금실 누나는 마침내 공화국 로력 영웅이 되였습니다.

7 년 전에 소년단 휘장이 달렸던 금실 누나의 앞가슴에 오늘은 금메달이 번쩍입니다.

금실 누나와 함께 소년단 생활을 하던 부선장 백 정숙, 기관장 현 정숙, 무전수 김 금자, 선원 유 영자 누나들의 가슴에도 국기 훈장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금실 누나는 당이 자기에게 준 임무를 빛나게 수행한 자랑을 안고 이번 민청 5 차 대회에 참가했던 것입니다.

《자, 어서 고기 잡이를 떠납시다. 한 kg의 물'고기라도 더 잡아 당과 원수님의 기대에 보답합시다.

이것을 하나씩 가슴에 달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 된 영예와 자랑을 안고 힘껏 일해 봅시다.》

금실 누나는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휘장을 누나들의 가슴에 달아 주면서 힘 있게 말했습니다.

배는 파도를 헤치며 먼 바다로 나아갑니다.

누나들의 얼굴마다에는 청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돌격대로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앞장 서라고 하신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훌륭히 실천할 재 결의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왜 바다'물에서는 헤염치기 쉬울가요?

강물에서 헤염치지 못 하던 동무들도 바다'물에서는 쉽게 헤염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가요?

모든 물체는 물에 잠기면 뜨는 힘(부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강물의 무게는 1ℓ가 1,000g입니다. 그러나 바다'물에는 소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으므로 1ℓ가 1,028g 가량 됩니다. 즉 바다'물이 더 무겁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바다'물에 들어 갈때는 강물에서보다 더 무거운 바다'물이 옆으로 흘러나오며 옆으로 흘러 나온 그 바다'물의 무게 만큼 가볍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강물에서 헤염치는 것보다 바다'물에서 헤염치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가렬하던 때의 이야기이다.

1952년 7월 10일 밤, 동부 전선 월비산 일대에서 싸우고 있던 우리 인민 군대 근위 제 86 련대 1 대대 용사들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351 고지를 습격하라는 전투 임무를 받았다.

원쑤들은 습격하는 우리의 인민군 용사들을 찾아 내려고 대낮처럼 밝은 조명탄을 공중에 주렁주렁 달아 놓고 날쳤다. 적들이 마구 쏘아 대는 포탄들이 전진하는 용사들의 주위에서 쉴 새 없이 터졌다.

습격 임무를 맡은 1 소대 형님들은 버스럭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돌멩이를 하나하나 옆으로 치워 놓으며 조심조심 기여 나갔다.

그의 맨 앞장에는 아직 애티가 가셔지지 않은 한 민청원 형님이 서고 있었다. 그는 이번 습격 전투에서 화점 파괴 조장의 무거운 임무를 맡은 김 명제 형님 (열아홉 살)이였다.

형님들은 밤이 깊어서야 돌격선을 차지했다.

정각 24시, 은하수 비낀 밤 하늘에 돌격을 알리는 신호탄이 높이 날아 올랐다.

서리'발 같은 총창을 비껴 들고 적 진지로 내닫던 소대는 뜻하지 않았던 철조망에 부딪쳤다. 형님들은 앞으로 더는 나갈 수 없었다. 원쑤놈들의 화점에서는 총알이 불'줄기를 그으며 마구 쏟아져 나왔다.

돌격하던 형님들은 잠시 바위들을 의지하여 엎드렸다. 적의 총알은 《휘》, 《휘》 휘파람 소리를 내며 형님의 앞뒤에 박혔다.

불꽃 튀는 눈초리로 적진을 쏘아 보던 명제 형님은 적의 철조망을 겨누고 수류탄을 던졌다. 그러나 겹겹이 늘인 철조망은 좀처럼 끊어져 나가지 않았다.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였다.

(명제야! 나라와 인민을 위한 싸움에

서 너는 무엇을 주저하느냐? 너는 나라 없는 설음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다 저주로운 세상을 원망하며 돌아 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느냐, 다시는 원쑤놈들이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 와서는 안 된다.)

어머니가 이렇게 웨치는 것만 같았다.

(그렇다!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준 당과 조국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싸워야 한다. 저 철조망에 엎드리자. 그래서 전우들에게 길을 열어 주자.)

명제 형님은 몸을 벌떡 일으켜 달려 가려고 하였다.

마침 이 때다.

《안 되오. 동무는 화점을 파괴할 임무를 맡았소.》

누군가 명제 형님의 옷 뒤'자락을 와락 끌어 당겼다. 그러나 형님은 뿌리치고 앞으로 내달렸다. 그러자 그는 명제 형님을 붙들어 밀치고 날쌔게 앞으로 달려 나가며 먼저 철조망 우에 엎드리는 것이였다.

《동무들! 내 등을 타고 넘으시오!》

철조망에 다가 간 명제 형님은 그만 가슴이 뭉클해서 멈칫 서 버렸다.

그는 자기가 항상 존경해 오던 로동당원인 산 인순 아저씨였던 것이다.

명제 형님은 그처럼 존경해 오던 아저씨의 몸을 어떻게 딛고 넘으랴 싶어 망설였다.

《명제! 무엇을 주저해! 어서 빨리 넘어 가 화점을 까부시라구!》

그의 목소리는 명제 형님의 심장을 불'덩이처럼 활활 타번지게 하였다.

(그렇다! 넘어야 한다. 어서 원쑤놈들을 쳐부셔야 한다.)

반전차 수류탄을 힘 있게 틀어쥔 명제 형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인순 아저씨가 몸으로 열어 준 돌격로를 따라 적의 철조망을 넘었다. 전우들도 형님의 뒤를 따라 하나 둘씩 그의 등을 타고 넘었다.

아저씨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으랴!

그러나 아저씨는 조금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듯 어금'이를 앙다물고 형님들의 길을 열어 주었다.

명제 형님과 전우들이 적 진지 앞에 다달았을 때였다. 10여 메터 앞에 개구멍같이 뚫어진 적의 불'구멍에서 갑자기 불을 토하기 시작했다.

맨 앞에 서 나가던 명제 형님은 불쑥 상반신을 일으키며 반전차 수류탄을 던졌다.

《꽝!》 골짜기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적 화점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명제 형님은 다른 쪽에서 맵살스럽게 짖어 대는 다른 또 하나의 중기 화점도 통쾌하게 까부셨다.

전우들은 만세를 부르며 돌격했다.

다른 소대에서도 원쑤놈들을 족치며 쏘아 대는 총'소리가 연신 들려 왔다.

그러나 총에 맞은 승냥이가 돌멩이라도 물어 뜯고야 너부러진다는 격으로 적들은 고지에서 물러 서려 하지 않았다.

돌격하는 인민군 형님들이 도저히 발을 붙일 수 없는 가파로운 언덕에 이르렀을 때였다. 산'등성이에 자취를 감추고 있던 3 개의 화점에서 또 갑자기 불을 내뿜기 시작했다.

비'발치듯 쏟아져 나오는 원쑤놈들의 총탄은 고지로 치달아 오르는 형님들에게 쏠렸다. 돌격하던 형님들은 더 전진할 수가 없었다.

풀밭에 엎드려 적의 중기관총 화점을 쏘아 보는 명제 형님의 가슴은 막 쑤시듯 아팠다.

명제 형님은 몸을 벌떡 일으키고 적의 불 뿜는 화구를 향해 쏜살 같이 내달았다.

《조장 동무!》

조원들은 그의 뒤를 치달아 오르며 명제 형님을 불렀다. 그러나 형님은 뒤도 돌아 보지 않고 쏜살 같이 달아 올랐다.

조원들은 자그마한 흙무지에 기대여 참호에서 총질하는 적들을 쏘아 눕히며 명제 형님의 전진을 도와 주었다.

적 중기 화점 앞에 다가 붙은 명제 형님은 수류탄을 뽑아 쥐였다. 순간 형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 것만 같았다.

적의 화점 세 개를 까부셔야 하겠는데 수류탄은 단 하나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적탄은 부채'살을 펀듯이 머리 우로 날아 가고 있었다. 형님은 뒤의 전우들을 얼핏 보았다.

적의 중기관총을 쏘아 보는 수 많은 눈'동자들…

(명제 동무! 용기를 내시오!)

철조망에 엎드려 길을 열어 주던 로동당원인 인순 아저씨가 자기를 쏘아 보며 웨치는 것만 같았다.

(몸으로 저 불'구멍을 막으리라!) 명제 형님은 벌떡 일어 서려던 순간 다른 생각

이 들었다. (그럼 나머지 두 개의 화점은?)

불현듯 명제 형님의 머리에는 언제인가 부대 지휘관이 들려 주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의 투쟁 이야기가 떠올랐다.

(항일 투사들은 맨주먹으로도 적들의 무장을 빼앗아 가지고 그 많은 원쑤의 무리들과 싸워 조국을 찾아 주지 않았는가! 그 분들의 혁명 정신으로 나도 적의 수류탄을 빼앗아 적의 화점을 족치자!)

다음 순간 명제 형님은 눈앞이 환히 트이는 것만 같았다. 형님은 적의 화점 뒤로 에돌아 갔다. 그리하여 적들이 드나드는 화점 뒤'문 옆에 바싹 붙었다. 놈들은 사격에만 정신이 팔려 헤덤비고 있었다.

명제 형님은 손에 틀어쥐였던 수류탄을 화점 안에 던졌다.

요란한 폭발 소리가 울리자 검은 연기가 화점 뒤'문으로 확 뿜어 나왔다.

명제 형님은 화점 안으로 뛰여 들어 가 적들의 시체에서 수류탄을 거두었다.

명제 형님은 적들에게서 빼앗은 수류탄을 가지고 이 번에는 다음 화점으로 치달아 올라 갔다.

형님은 맵살스럽게 짖어 대던 나머지 불 아구리도 보기 좋게 까부셨다.

그러자 전우들이 만세를 부르며 산'봉우리로 돌진했다.

마침내 351 고지는 인민군 아저씨들의 손에 들어 왔다.

승리한 고지에서 기쁨과 감격을 금치 못 하여 목청껏 웨치는 《조선 로동당 만세!》, 《김 일성 장군 만세!》 소리는 동해의 맑은 물'결을 타고 멀리 메아리쳤다.

☆

☆ ☆

눈물의 교실

얼마 전 강원도 (남조선) 강릉시 옥천 《국민 학교》 5 학년 교실에서 있은 일입니다.

아침 끼니도 설치고 온 학생들은 누구 하나 누더기'자락을 걸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봄 추위는 뼈 속으로 스며 들었습니다.

피'기 없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솜털이 내돋았습니다. 보기마저 가련했습니다.

국어 시간이였습니다. 목청을 돋우어 가르치는 손 선생은 이상한 냄새가 방안에 풍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생들도 저마다 코를 벌름거리며 앞뒤를 돌아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냄새일가? 분명 술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이 때 이것을 아랑곳 없이 졸고 있는 한 처녀애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 화림입니다. 그의 나이는 열 세 살입니다.

(그렇게 공부에 열성이던 화림이가 왜 아침 첫 시간부터 저 모양일가? 어제'밤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화림이에게로 갔던 손 선생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림이한테서 술 냄새가 났던 것입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 오른 선생은 졸고 있는 화림이를 다짜고짜로 일으켜 세웠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화림이에게로 쏠렸습니다.

그제서야 눈을 비비며 제 정신을 차린 화림이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는 것이였습니다.

《어린것이 술을 먹어 응?》

손 선생은 성이 나서 회초리를 들고 그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선생님, 술을 먹은 게 아니라…》

화림이는 말끝을 맺지 못한 채 그저 훌쩍훌쩍 울기만 했습니다.

화림이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놈들의 군용 도로 건설장에 끌려 갔다가 폭약이 터지는 바람에 억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 대로 화림이를 잘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마른 일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뚫아 다녔습니다.

《엄마, 나 인젠 학교엘 그만 둘래요.》

어머니가 학비 걱정, 먹을 걱정으로 딸 몰래 속으로 피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치 빠른 화림이는 이런 말을 하고는 어머니 품에 와락 안겨 흐느끼군 하였습니다.

《애, 화림아!》

어머니는 고달플 때마다 자기의 쓰라린 마음을 곧잘 알아 맞히고 위로해 주는 딸이 더 없이 귀여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외딸을 공부시켜 보리라고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도 나가 일을 했고 남의 집 식모살이도 했습니다.

그나마의 일도 오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침 이웃 마을에 있는 술을 만드는 양주 공장에서 품을 팔게 되였습니다. 집으로 올 때면 어머니는 굶은 화림이를 생각하여 술을 걸타 남은 술 찌꺼기를 가져 오군 했습니다.

남조선을 잊지 말자

냄새가 역해서 돼지나 먹는 이 술 찌꺼기를 화림이네는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화림이는 그 날 아침에도 이 술 찌꺼기를 먹고 학교에 온 것입니다.

먹지 못 해 가뜩이나 약한 화림이는 아침에 먹은 독한 술 찌꺼기에 취해서 그만 첫 국어 시간에 그처럼 졸게 되였던 것입니다.

《어서 바른 대로 말을 해라. 술을 먹지 않았는데 왜 술내가 나느냐? 첫 시간부터 왜 조느냐?》

선생은 다시 회초리를 들어 화림이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화림이는 이런 봉변을 당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는 더는 사연을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은 게 아니예요. 밥이 없어서 술 찌꺼기를 먹었어요. 선생님 용서하세요.》

화림이의 이 말을 들은 손 선생은 그만 고개를 재끼고 슬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학생들의 눈에도 눈물이 글썽해졌습니다.

그들도 화림이를 따라 울었습니다. 손 선생의 눈도 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실이 울었답니다. 그'놈의 망할 세상이 저주로와 흘리는 원한의 눈물이였습니다. 오죽하면 돼지나 먹을 술 찌꺼기를 사람이 먹었겠습니까! 어찌 남조선에 이런 사람이 화림이네 뿐이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코'물 훔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다 같은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랍니다. 눈물이 글썽해지는 그 눈'시울에 반드시 웃음이 피여 날 날은 오고야 말리라고 손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밖에는 갑자기 봄'비가 내렸습니다. 나무들에 움트기 시작한 새움은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 선생은 밖을 가리키며 국어 시간의 마지막 말을 맺았답니다.

《저 백양나무 가지들이 푸르게 물듭니다. 저 백양나무도 춥고 긴 겨울을 지내 왔습니다. 다 죽은 것만 같던 나무가 봄이 되자 저렇게 푸르게 살아 나지 않습니까!

봄의 힘은 그렇게 크답니다. 봄의 힘을 막을 자는 세상에 없답니다.

우리도 화림이도 봄을 맞을 것입니다. 참된 삶의 봄, 배움의 봄은 우리 학급에도 찾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 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아버지, 형님, 누나들처럼 싸워야 봄은 옵니다.》

학생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눈'시울에는 활기가 어리여 있었습니다. 손 선생이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알았답니다.

(이것은 모두 미국놈들과 박 정희 도당

놈들 때문이야. 그 놈들을 쳐 없애야 해.)

손 선생과 화림이 그리고 학급 학생들의 마주친 눈'길은 말없이 힘 있는 약속을 하는듯 싶었습니다.

× ×

오늘 남조선에는 화림이와 같이 쌀밥 구경 한 번 못하고 비참하게 사는 어린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온 남조선 천지가 헐벗음과 굶주림에 아우성치고 있으며 온 남조선의 교실이 《눈물의 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남조선의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이 《눈물의 교실》이 《기쁨과 희망의 교실》로 되게 하기 위해 썩은 정치 물러 가라고 웨치면서 일어 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의 웨침

소년단원 동무들!

당의 따뜻한 품'속에서 공화국의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남녘 땅에서는 미제와 그의 앞잡이 박 정희 도당들을 반대하는 청년 학생들의 피어린 투쟁이 계속 일어 나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박 정희 도당들은 남조선을 미국놈에게 팔아 먹다 못 해 이제 와서는 36 년 간이나 우리 조선을 강점하고 있었던 일제놈에게까지 팔아 먹으려 날뛰고 있습니다.

정의감이 강하고 애국적인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서울과 부산, 대구와 광주, 남녘 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안으로는 인민을 탄압 학살하고 밖으로는 나라를 팔아 먹는 박 정희 깡패 무리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불'길을 높이 추켜 들고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교를 비롯한 남조선 각 대학생들과 고등 학교 학생들이 원쑤들의 폭압을 박차고 지난 3월 24일에 시위를 시작했는데 4월과 5월, 6월에도 계속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싸움에 떨쳐 나선 것은 비단 대학생들 뿐이 아닙니다. 대학생, 고등 학교 형님, 누나들의 애국적 투쟁에 고무된 남녘 땅 어린이들도 양키를 몰아 내고 박 정희 도당을 쓸어 버리기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의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대렬 속에서 서울 명지 중고등 학교 1학년 김 길웅 동무가 원쑤들을 반대하여 어떻게 싸웠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 ×

삼각산 골짜기의 눈도 다 녹고 한강의 얼음이 풀려 제법 따사로운 봄'바람이 훈훈히 부는 봄철 어느 날이였습니다.

강남에서 돌아 온 제비가 지지배배 우짖는 학교 운동장에 들어 선 김 길웅이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장 군데군데에서 짝을 지어 웅성거리는 동무들이 눈에 띄였습니다.

그들은 길웅이를 보자 우루루 밀려 와 그를 둘러 쌌습니다.

《길웅아, 우리는 너를 퍽 기다렸어. 우리 토론 좀 하자구.》

남조선을 잊지 말자

길웅이와 두리에 모인 학급 동무들은 모두가 지난 3월 24일 서울 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일으킨 대학교 형님, 누나들의 투쟁에 자기들도 떨쳐 나설 것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국놈과 일본 사무라이들을 섬기는 박 정희 도당은 대학생 형님, 누나들의 애국적 투쟁을 곤봉을 휘두르면서 짓밟으려 하고 있어… 어제 영식이 형님은 경찰과 맞서 싸우다가 놈들의 곤봉에 얻어 맞아 지금 병원에서 앓고 있어. 대학생 형님, 누나가 피 흘리고 있는 이 때 우리가 나이 어리다 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야 없지 않니… 싸워야 해. 약속 대로 방과 후에 모두다 떨쳐 나서자…》

길웅이의 분노에 찬 웨침을 들은 동무들은 모두 주먹을 불끈 쥐고 원쑤놈들에 대한 격분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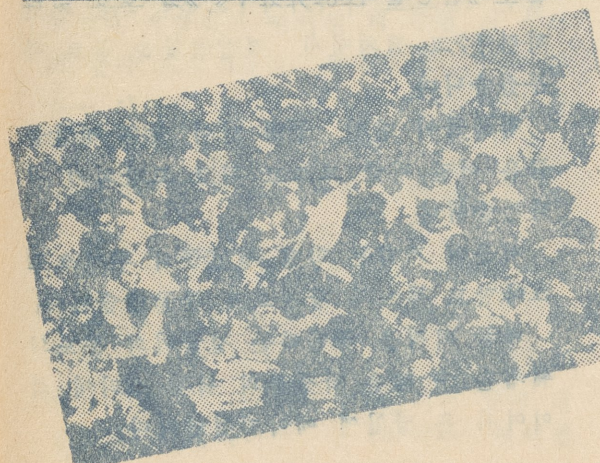
옆에 있던 영식이도 주먹을 불끈 쥐고 《내 형님의 원쑤를 기어이 갚고야 말겠다. 이 놈들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다.》고 웨쳤습니다.

다른 동무들도 《길웅이, 영식이 말이 참 옳아. 나라를 팔아 먹고 우리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빼앗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을 짓부시자!》고 울부짖으면서 모두 시위에 나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교실에 들어 선 길웅이는 앞으로 할 시위에 대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부 시간에 그는 선생님의 이야기 대신 괴뢰군에 끌려 나가 모진 고생을 하다가 죽은 형님, 미국놈 비행장에서 일하다가 짐짝에 치워 허리를 쓰지 못하여 3 년째 누워 있는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길'가에 버려진 종이를 주어 팔아서 두부 비지 몇 덩이를 사 오는 어머님, 배고파 젖을 찾는 동생 등 식구들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그림처럼 얼른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학교에서 월사금을 물지 못해 쫓겨 나 구두 닦이 통을 메고 거리를 헤매는 같은 또래의 동무들이 경찰의 채찍에 맞던 일과 설날 아침에 길웅이가 앓는 아버지에게 사과라도 한 알 대접할가 해서 피를 뽑다가 쓰러진 눈물겨운 가지

달려 드는 괴뢰 경찰들을 돌로 까눕히며 육박전을 하는 서울시 내 대학생들

투쟁에 나선 서울시 내 대학생들은 괴뢰군 자동차를 빼앗아 타고 《청와대》로향해 달리고 있다.

남조선을 잊지 말자

가지 일들이 삼삼히 떠올랐습니다.

길웅이는 이 모든 것이 다 미국놈과 그의 졸개인 박 정희 도당의 탓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이 놈들을 그 대로 두고서는 삶도 배움의 행복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약속 대로 학교 학생들은 미제와 박 정희 깡패 무리들을 반대하는 시위 투쟁에 나설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무들은 호주머니에다 돌을 가득 가득 가지고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길웅이와 영식이를 비롯한 나어린 1 학년 학생들이 시위 대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낮 1시 40분 경에 《일본 인은 집으로 돌아 가라!》,《박 정희 정권 물러 가라.》,《체포한 학생 석방하라.》,《한일 회담 물리치자.》 등 프랑카트를 들고 이 학교 1천여 명 학생들이 매국 역적 박 정희가 도사리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전진하였습니다.

길웅이는 대렬의 맨 선두에 서서 《미국은 한일 회담에 관여 말라!》,《한일 회담 즉시 중단하라!》, 《굶주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목청껏 웨쳤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형님들의 뒤를 따라 《중앙청》 앞에 쌓아 놓은 바리케트를 부수고 성난 물'결과 같이 도도히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시 55분 경 전차'길에서 시위를 계속하던 이 학교 학생들은 발톱까지 무장한 경찰이 쳐 놓은 바리케트 8 개 중 4 개를 완전히 부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놈은 질겁한 나머지 학생 시위 대렬에다 최루탄 (국제적으로 금지되여 있는 유독한 화약탄)을 마구 쏘았습니다. 그러나 길웅이가 맨 선두에 선 이 학교 시위 대렬은 더욱 더 성난 사자처럼 《청와대》로, 《청와대》로 육박하였습니다.

당황 망조한 경찰놈들은 학생들을 곤봉과 구두'발'길로 마구 때리고 찼습니다.

맨 앞줄에 섰던 20여 명의 학생들이 놈들의 곤봉에 얻어 맞았습니다.

길웅이도 경찰놈과 마주 서서 두 놈을 까눕혔으나 어린 몸인 탓으로 그 놈들의 곤봉에 얻어 맞았습니다. 길웅이의 머리에선 피가 굉장히 흘러 내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길웅이는 잠시 후에 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놈들아! 내 할아버지를 죽인 일제놈들을 다시 끌어 들이려는 매국 역적 놈들아! 네 놈들을 그냥 두지 않을 테다!》라고 웨친 길웅이는 터진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날쌔게 경찰놈에게 달려 들어 그 놈의 손목을 물어 뜯었습니다.

길웅이의 용감한 모습을 본 시위 학생들은 《앞으로 나아가자!》,《저 놈을 처단하라!》고 웨치면서 경찰놈들을 돌로 까부셨습니다.

학생들이 던진 돌에 얻어 맞은 경찰놈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뒤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학생 청년들의 투쟁으로 그야말로 분노와 항쟁으로 들끓었습니다.

매국 역적을 규탄하는 길웅이의 분노의 웨침은 수 많은 학생들의 웨침 소리에 섞이여서 온 장안에 메아리쳤습니다.

—☆—

(1 회)

김 룡 익

그림 유 환기

1

참말 이상한 일이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미국놈들이 우리 마을을 강점했을 그 때에는 물론 학교도 없었고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인민 군대가 다시 진격해 나온 지금 (1951년 봄이였어요.)은 사정이 전혀 달라진 게 아니예요? 마을 뒤'산 밤나무'골에는 반토굴로 넓다란 학교도 새로 지었고 또 우리들을 그처럼 극진히 사랑하며 귀여워 해 주던 최 선생도 돌아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처녀애만은… 아이참 난 왜 그 애 이름을 진작 물어 보지 못 했담… 하여간 그 처녀애만은 글쎄 학교엘 못 다닌다는 거예요.

바로 어제 있은 일이였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어제부터 공부가 시작되였어요. 집들은 물론 밭두렁에 서 있는 원두막까지도 마구 폭탄을 퍼붓는 놈들의 비행기를 피해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된 동무들이, 심지어는 근 10 리나 떨어진 깊은 산'골짜기에서 살고 있는 보옥이랑두 죄다 학교에 나왔거든요.

나는 학급 반장 책임까지 지구요.

최 선생님은 이 날 아침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마을에 학교에 못 나온 동무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동무들이 있거든 모두 학교에 나오게 해요.》

그 때 난 자신만만히 대답했어요.

《우리 마을엔 더 학교에 나올 동무들이 없어요…》

우리 마을은 내가 손'금 보듯 죄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날 공부를 끝마치고 집을 향해 막 내'가를 건느는 참인데 글쎄 여라문 발'자국 떨어진 후미진 곳에서 누군가가 옷가지를 내'물에 헹구며 빨래를 하고 있질 않겠어요. 열 두세 살쯤 나 보이는 처녀애가 말이예요.

나는 무심코 그 쪽을 보았어요.

물론 그 애도 앉은 그 대로 움짝 않고 나를 빤히 보거든요. 헹구던 빨래'감을 두 손으로 꼭 모두어 쥐고 말이예요. (누굴가?)

암만 보아도 처음 보는 애였어요.

이웃 마을에서도 보지 못 하던 동무였어요. 그래 나는 그 애 앞으로 다급히 걸어 갔어요.

《애!》 내가 그 애를 찾으며 이렇게 물었어요.

《너 이 마을에서 사니?》

그런데 처녀애는 인차 대답치는 않고 그 지친듯한 눈'길로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물'방울에 젖은 살눈섭을 깜빡거리며 말이예요. 그러더니 그 애는 살며시 눈을 내려 깔며 호—한숨을 내쉬거든요.

《응…》

처녀애의 목소리는 어딘가 서글프리 만큼 가냘프게 들렸어요.

《그럼 집이 어디냐?》

내가 이렇게 묻자 처녀애의 손끝은 뒤'산 기슭에 깎아지른듯한 벼랑이 있는데 바로 그 밑의 초가집을 가리키거든요. 그 집은 얼마 전에 이사 온 집이였어요.

(오라, 우리 마을에 피난 온 애였구나,)

아직은 이른 봄이여서 음달진 골짜기나 계곡들에는 눈이 있었어요.

아침 저녁은 여간만 쌀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애는 글쎄 홑것을 입고 손을 담그면 얼어 빠질듯한 찬물에서 빨래'감을 헹구고 있거든요.

오리발처럼 빨개진 작은 손'가락을 입김으로 호—호—불며 말이예요.

난 별스레 이 애가 측은해 보였어요. 퍽 동정이 들었어요. 그래 난 그 애 앞에다가 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 손이 시리겠구나. 인줘 내 좀 빨아 줄게…》

그런데 처녀애는 선뜻 빨래'감을 내놓질 않았어요.

그저 힐끔 나를 쳐다보고는 나직이 한숨만 내쉬는 게 아니겠어요?

《참 애두…어서 줘. 내 좀 빨아 준다는데두…》

나는 와그그 물거품이 일도록 빨래'감을 헹구며 처녀애에게 물었어요.

《오늘부터 우린 학교에서 공부를 한단다. 너 학교엘 안 가련?》

처녀애는 또다시 눈을 내려 깔고 잠자코 있다가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난 몰라……》

난 이 처녀애가 하두 이상스레 여겨져 《왜 싫니?》 하고 물었더니 역시 그 애의

대답은 여전하거든요.

《난 몰라…》

그리고는 다 빤 빨래'감을 작은 함지에 담아 이고 타발타발 집을 향해 걸어 가는 게 아니겠어요.

참 이상도 하다니까요. 글쎄 학교엘 다니자니 선뜻 대답을 안 하니 말이지요.

난 어제 이런 일이 있은 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자꾸만 그 처녀애의 얼굴이 떠올라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난 이 날 공부를 끝마치고 선생님께 그 이야길 했더니 선생님도 한 번 가 보겠다고 하시면서 날더러 한 번 더 그 애네 집을 찾아 가 보라지 않아요. 그래 난 보옥이와 함께 그 처녀애의 집을 찾아 가기로 했어요.

오늘은 류별나게 날씨가 포근했어요.

길섶에 파르스럼하게 되살아 난 풀'잎들이 간밤에 퍼그나 자란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지름'길을 타고 마을로 통한 고개'마루에 뛰여 올랐어요.

그러자 눈앞에 확 띄우는 맞은편에는 망망한 서해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질 않아요. 그 한가운데는 거뭇거뭇한 섬이 바라 보이구요.

그 섬은 우리 마을에서 미처 도망치지 못 한 놈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섬이였어요.

《개놈들!》

난 그 섬을 바라 볼 때면 한때 우리 마을을 쥐락펴락하며 인민들을 못 살게 굴던 지주 강 석필이란 놈이 인차 떠올라 막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놈은 후퇴 때 치안대 대장까지 해 먹으며 숱한 마을 사람들을 학살한 악질 지주였어요.

당원인 우리 아버지를 불에 태워 죽인 놈도 바로 그 놈이였어요.

내가 입술을 악물고 한동안 그 섬을 쏘아 보고 있는데 보옥이가 《애》하고 나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보옥이도 그 놈을 생각하고 있던 모양이예요.

《엥이 분해…어쩜 그 놈을 놓친단 말야. 씨도 안 남게 죽쳐 죽이지 못 하구…》, 《그러기 말야, 이제라도 그저 그 놈을 만나면…》

난 나도 모르게 불끈 주먹을 쥐였어요. 그런데 그 때 보옥이가 바싹 내 곁에 다가섰어요.

《순이야, 너 들었니?》

《뭐?》

난 어딘가 심상찮은 보옥이의 말에 다소 놀라며 다우쳐 물었어요.

《얼마 전에 말이지, 도망쳤던 놈들이 말야 재밤에 배를 타고 우리 마을에 기여 들려 했다지 않겠니. 그러다가 그만 우리 인민군 아저씨들께 혼쌀이 나서 달아 났대.》

《씨, 암만 기여 들려면 기여 들라지며 —그깐 놈들 다 죽쳐 버릴 텐데머—》

우리는 제각기 생각에 잠겨 또 말없이 걸었어요. 그런데 보옥이가 갑자기 《참 이상해…》 하고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하거든요.

《뭐가?》

내가 묻자 보옥이는 목을 빼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려요. 그리고는 내 곁으로 더욱 바싹 다가 서며 귀'속말로 나직이 말하거든요.

《어제 밤에 말야. 울 엄마가 늦게 회의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는데 글쎄 뒤'산 어디메선가 골짜기에서 시뻘건 불티가 쌩 하늘로 올랐다지 않겠니. 그건 신호총으로 쏜 신호래. 얼마 전에 폭탄에 불탄 쌀 창고두 말야 그 놈들이 신호해서 비행기가 폭격했다지 않어…》

《그래?!》

나도 그 말을 이미 들은 적이 있었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어쨌든 요새 그런 말이 떠돌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무원 아저씨들도 그 출처를 알아 내자고 한대요.

(근데 그 신호총은 어디서 올랐나?) 나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 막 안타깝기까지 했어요.

2

어느덧 우리는 어제 그 애가 가리키던 벼랑 밑의 초가집을 찾아 갔어요. 집엔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

간 서성거리며 집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던 나는 똑똑 대문을 두들겼어요.

《계시나요?》

《…………》

역시 인기척이 없었어요.

이 번에는 더욱 크게 대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을 찾았어요. 그 때에야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검쉰 목소리가 울렸어요.

《거 누구냐?》

그런데 난 얼'결에 대답한다는 것이 그만 《나예요. 순이예요.》 하고 소리치다 싶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안에서는 좀 좋지 못 한 말투가 들려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라니? 나가 누구란 말이야?》

찌궁—대문이 열리며 얼굴을 쑥 내민 사람은 50이 훨씬 넘은듯한 늙수그레한 로인이였어요.

《누굴 찾나?》

로인의 말투는 역시 어딘가 거칠었어요. 로인은 심상찮은 눈'길로 우리의 아래우를 쭉—훑어 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

나는 그 처녀애의 이름을 몰라 막 안타까와 하며 다급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제 내'가에서 빨래한 그 처녀애 말이예요. 학교에 다니지 않는 그 애 말이예요.》

《건 왜 묻나? 무엇 땜에?》

《학교에 가자구요. 어제부턴 우리 학교에서 공부가 시작되였거든요. 우리 마을 애들은 모두 학교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처녀애만이……》

그런데 로인은 웬 일인지 나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펄쩍 뛰며 혀를 차는 거예요.

《이 전쟁판에 학교엔 무슨 학교냐? 너흰 비행기두 무섭지 않나? 이담 전쟁이 끝나구두 얼마든지 학교엘 다닐 수 있는데 하필 이 란리통에 학교에 다닐 건 뭐람.》

하지만 나는 기를 쓰고 우겼어요.

《아니예요. 학교엘 다녀야 해요. 우리가 공부를 잘 해서 우등, 최우등생이 되는 것도 미국놈과 싸우는 일이예요. 어제두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던요.》

그런데도 로인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너희나 다녀라. 우리 앤 이담에 학교에 간다.》 하고는 대문을 찌쿵— 닫는 게 아니겠어요?

절꺼덕거리며 대문의 빗장이 걸리는 소리도 나구요.

《?……》

우리는 로인의 말에 그만 어이가 없어 그저 멍청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글쎄 이런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어리다구 우릴 깔보거든요.

난 이 날처럼 마음이 언짢은 일이 없었어요. 생각 같아서는 로인을 따라 들어가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자! 가!》

보옥이도 잔뜩 성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냥 되돌아 왔어요.

《참 이상해, 어찌 그럴 수 있어.》 집으로 걷는 나의 발'걸음은 여간만 무겁지 않았어요.

(다음 호에 계속)

도수 체조 몇 가지

체육을 즐기는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도수 체조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도수 체조는 온 몸을 단련하는 아주 좋은 체육 중의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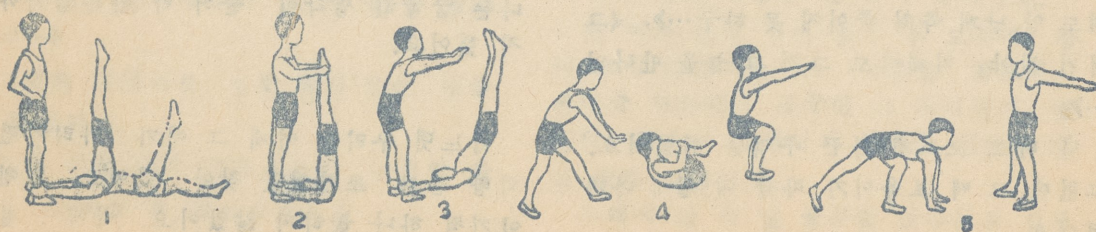
도수 체조를 하면 온 몸이 고루 발달하며 따라서 몸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동작하는 방법:

①한 동무는 누워서 량 손으로 다른 동무의 발목을 잡고 몸을 다리부터 점점 세워 일으켜 어깨를 짚고 선다.

②서 있는 동무는 누운 동무의 발목을 잡는다.

③다음 누운 동무는 발을 뒤로 힘차게 밀어 낸다.

④발을 힘차게 뒤로 밀어 내는 힘으로 다시 눕게 되는데 그 순간 몸을 쪼그리고 등을 땅에 대면서 몸을 굴려 앉았다가 일어 선다.

⑤다음은 그 자리에서 몸을 한 바퀴 핵 돌려 다음 동무와 마주 서서 둘째 동무를 도울 준비 자세를 가진다. 둘째 동무는 이 때 한 발을 앞으로 내짚고 몸을 엎드리고 량 손으로 땅을 짚는다.

⑥첫째 동무의 도움을 받으며 두 손을 땅에 짚고 다리를 뒤로 쳐들어 꺼꾸로 선다.

⑦다음은 발을 내리우면서 팔과 다리를 벌려 짚는다.

⑧⑨⑩동시에 몸을 앞으로 내 가면서 몸을 한 뭉치가 되게 쪼그려서 첫째 동무가 그 위를 뛰여 넘고 재주 넘이를 할 수 있게 한다.

1 2 3 4 5

지구 이야기

(1)

잡지 《소년단》 1963년 12 호부터 과학 환상 만화 《땅 속의 보물을 찾아서》가 련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편집부에는 독자들로부터 지구는 언제 생겨 났고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좀 더 자세히 알려 달라는 편지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는 《땅 속의 보물을 찾아서》를 쓰신 선생님을 찾아 가 독자들의 요구에 대답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번 호부터 선생님이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 났고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가를 동무들에게 재미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구가 언제 어떻게 생겨 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 옛날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서로 다른 자기들의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몇 십 년 전까지만 하여도 어떤 학자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태양에서 떨어져 나올 때의 돌던 그 힘에 의하여 지금도 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태양은 쇠'물처럼 녹아 있는 큰 물체인데 거기서 우연히 떨어져 나와 식어서 오늘의 지구가 되였다고 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 말이 그럴듯 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정말 어떻게 생겨 났을가요?

아득한 옛날에는 우주에 지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보는 별들과 태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우주에는 모래나 먼지와 같은 작은 알맹이들이 무수히 널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만유인력 (물체들이 서로 잡아 당기는 힘)의 법칙에 의하여 서로 작용하면서 한데 엉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점점 덩어리가 커져서 나중에는 오늘과 같은 지구'덩어리가 되였습니다.

우주에 널려 있는 그런 작은 알맹이들은 지금도 지구가 잡아 당기는 힘에 의하여 지구 우에 떨어지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별찌(운석)라고 합니다. 이런 별찌는 먼지나 모래알처럼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고무 풍선이나 큰 독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 우에 1 년 동안에 약 400 톤의 별찌가 떨어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비오듯 수십만 톤씩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가요?

일부 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45억 년 혹은 60억 년 전으로 계산하였지만 많은 학자들은 약 70억 년 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에 생긴 지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였겠습니까?

동무들은 지구가 생길 때부터 오늘과 같은 조선 땅이 생기고 동해와 서해, 백두산과 금강산 또는 대동강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생긴 후부터 수십억 년 동안 지나 오는 사이에 륙지가 바다로도 되고 바다가 륙지로도 되면서 끊임 없이 변화하고 발전하여 오늘과 같은 륙지와 바다가 생기였고 조선 반도도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끊임 없이 변하고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바다나 호수였던 곳이 지금은 륙지로 변한 곳도 있고 옛날에는 륙지였던 곳이 호수나 바다로 변한 곳도 있습니다. 례를 들면 약 1억 5천만 년 전에는 평양도 큰 호수에 잠겨 있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의 모란봉이나 학생 소년 궁전이 우뚝 솟아 있는 장대'재도, 인민군 추모탑이 서 있는 해방산도 모두가 물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몇 백 년 동안에 일어 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십 또는 수백만 년을 지나는 동안에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구를 연구할 때 지구가 생긴 처음부터 연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00만 년 전에 생겼지만 지구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인 70억 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때에는 지구 우에 동물도, 식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계속 지구 상으로 별찌들이 떨어져서 지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때에는 지구가 지금보다 퍽 작았을 것입니다. 대략 지구가 오늘과 거의 같은 크기와 형태로 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 때의 지구를 연구의 첫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구의 발전 력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지구가 발전해 온 시대를 순서 별로 몇 개로 나누었답니다. 즉 학자들은 전 세계의 지층들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같은 특징에 따라 크게 묶어서 다섯 개의 지질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오랜 것으로부터 차례로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및 《신생대》로 나누고 이것을 통털어 《지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서로 다른 지질 시대에는 각각 다른 생물들이 살았고 각각 다른 지각 운동이 일어 났습니다.

시생대와 원생대는 가장 오랜 옛날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생물이 있기는 하였지만 아주 유치했고 또 대단히 적었습

바다'물에도 금이 있다

바다'물에도 금이 있다면 아마 어떤 동무들은 놀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물에는 많은 금, 은이 있습니다.

바다'물 1 톤 속에는 은이 0.0002~0.0003g (0.2~0.3mg)이나 들어 있으며 금은 0.000005g(0.005mg) 정도 들어 있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전 세계의 바다'물에 있는 금을 한 곳에 모은다면 실로 수십억 톤이 될 것입니다.

대	기	시 작	마 감
신생대	제 4 기	100만 년 전	현재에도 계속됨
	신 제 3 기	2천 5백만 년 전	100만 년 전
	고 제 3 기	7천만 년 전	2천 5백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1억 4천만 년 전	7천만 년 전
	유라기	1억 8천 5백만 년 전	1억 4천만 년 전
	삼첩기	2억 2천 5백만 년 전	1억 8천 5백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	2억 7천만 년 전	2억 2천 5백만 년 전
	석탄기	3억 2천만 년 전	2억 7천만 년 전
	데본기	4억 년 전	3억 2천만 년 전
	씰루르기	4억 2천만 년 전	4억 년 전
	오르도비스기	4억 8천만 년 전	4억 2천만 년 전
	캄브리아기	5억 7천만 년 전	4억 8천만 년 전
원생대	—	18억~19억 년 전	5억 7천만 년 전
시생대	—	35억 년 전 이상	18~19억 년 전

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층은 오랜 세월을 지나 오는 동안에 지각 운동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두 변질되고 헝클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생대와 원생대의 지층을 더 구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고생대, 중생대 및 신생대의 지층들에는 화석들도 많이 있고 변질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 지질 시대를 구체적으로 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시대의 단위를 《기》라고 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각각 몇 개의 《기》로 나누어집니다.

고생대는 오랜 것으로부터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씰루르기, 데본기, 석탄기 및 페름기로 나누고 중생대도 역시 오랜 것으로부터 삼첩기, 유라기 및 백악기로 나누며 신생대는 고 제 3 기, 신 제 3 기 및 제 4 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동무들이 보는 모란봉의 부벽루 절벽을 이루고 있는 바위는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질 시대로 말한다면 유라기 지층인 것입니다. 또한 약 4억 8천만 년 전에 형성된 순천 부근의 석회암은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의 땅이며 2천 5백만~100만 년 전에 형성된 함경 북도 길주의 사암층은 신생대 신 제 3 기의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 낼가요? 그것은 그 때의 식물이나 동물들이 죽어서 된 화석을 가지고 알아 냅니다. 지금도 평양 시내의 지층 속에는 유라기의 화석들이 있고 함북 길주에는 신생대 신 제 3 기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 번에는 우에서 우리가 나눈 매개 지질 시대에는 어떠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살았으며 어떤 화석과 어떤 암석들이 생겼는가, 땅이 어떻게 변하였고 그 때의 지리적 환경은 어떠하였는가를 알아 보기로 합시다.

제일 먼저 시생대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생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5억 년 전부터 19억 년 전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시생대 초기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오랜 옛날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으나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로 시생대의 마지막 시기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지구 우에 륙지도 있었고 바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벌써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동물인지 혹은 식물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원시적이고 락후한 것이였습니다.

동무들 중 석암 소년단 야영소에 갔다 온 동무들은 잘 알 것입니다.

석암 일대의 바위들을 자세히 보면 줄무늬가 쭉쭉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마암》

이런 바위를 편마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먼 옛날 바다에서 생긴 돌로써 우리 나라의 평안 남도의 서해안 일대와 평안 북도와 자강도 일대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생대 말기에는 이 지방은 바다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방 뿐만 아니라 시생대에는 우리 나라의 전체가 바다였습니다.

시생대의 바다'물은 오늘의 것처럼 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의 바다'물은 짜졌겠습니까? 그것은 강물이 흐르면서 계속 돌 속에 있는 염류들을 녹여서 바다로 나르기 때문입니다.

시생대에는 또한 공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오늘의 공기와 같이 산소나 질소가 많지 않고 탄산가스가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때에 화산이 많이 터졌는데 이 화산으로부터 탄산가스가 많이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 탄산가스를 흡수할만한 식물들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음에는 원생대를 보기로 합시다.

(다음 호에 계속)

(만 화)

의병대장 김윤후

김 유 방

고려 때의 이야기이다.

말 타고 창 든 몽고군이 대포를 끌고 물밀듯이 고려에 쳐 들어 왔다.

고려는 나라의 운명이 참으로 위태로와졌다.

이 때 고려의 량반 통치배들은 비겁하게도 자기 목숨만 건지겠다고 강화도 섬 속으로 도망쳐 숨어 버렸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인민들은 맨주먹으로 일어 나서 몸으로 원쑤의 화포를 막으면서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웠다.

이러한 몽고군의 침입은 1231년부터 25년 동안에 여섯 번이나 계속되였다.

원쑤들이 기여 들면 논밭은 짓밟히고 집은 불에 타고 어린아이는 죽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빈 젖만 빨며 아우성쳤다.

1232년 겨울에도 몽고군 수만 명이 압록강의 얼음을 타고 다시 기여 들었다.

그 때 적의 사령관은 처음에 쳐 들어 왔던 살례탑이라는 놈이였다. 짐승 같은 이 놈의 만행을 몸소 겪은 고려 인민들은 그 놈의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으며 이를 갈았다.

몽고군이 경기도 룡인에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의 일이다.

사령부를 그 곳의 큰 절'간에 두고 살례탑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 때에 고려에는 김 윤후라는 용감한 의병 대장이 있었다.

나라와 인민을 사랑하는 김 윤후 대장은 원쑤들이 쳐 들어 온 때 자기 목숨만 건지겠다고 강화도로 도망친 봉건 통치배들의 비겁한 행동에 격분을 금치 못 하고 있었다. 그는 앉아서 원쑤들의 만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두려워 하지 않는 김 윤후 대장은 적의 우두머리가 이 절'간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그는 우선 이 간악한 원쑤의 우두머리부터 쳐 없애리라고 결심하였다.

대담무쌍한 윤후 대장은 혼자서 깊은 밤을 타서 원쑤놈의 우두머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절'간으로 다가 갔다. 기회를 엿보다가 살례탑이 나타나기만 하면 해치우자는 것이다. 그는 어둠 속으로 숨을 죽이고 발'걸음 소리도 나지 않게 조용히 다가 들어 갔다. 그리하여 절'간의 마루 밑에 감쪽 같이 숨어 있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바깥을 내다 보니 온 천지가 잠들어 조용하였다. 얼마 아니하여 이 조용한 공기를 깨뜨리고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 왔다. 김 윤후 대장은 들킬가 보아서 더욱 납작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다. 수직하는 위병이 순찰을 하느라고 천천히 걸어 오는 것이였다. 위병놈은 윤후 대장이 숨어 있는 쪽으로 오더니만 걸음을 멈추고 가지를 않는다. 아무래도 수상한 일이였다. (만일 저 놈이 내가 이 곳에 있는 기미를 알고 잡으러 들어 온다면…아무래도 내가 먼저 손을 쓰자!) 이렇게 결심한 윤후 대장은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화살을 겨누고 당기였다.

순간 그 무엇이 윤후 대장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 갔다. 흠칠 놀라 돌아 보니 때마침 마루 밑에서 돌아 다니던 쥐가 김 윤후 대장의 목을 타고 넘어 갔던 것이다. 그 바람에 그만 화살이 빗나자고 말았다.

윤후 대장은 목이 간지럽고 소름이 끼치였으나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 보았다. 때마침 멀리서 동네 개 짖는 소리가 컹컹 들려 오고 있었다.

그 바람에 위병놈은 화살이 날아 가는 것도 눈치 채지 못 한 모양이였다.

《컹컹!》 개 짖는 소리가 점점 요란히 들려 오자 위병놈은 그 곳으로 또 발'길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들키지 않았구나!》 윤후 대장은 자기도 모르게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살례탑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밤을 새웠다.

아침 해'빛이 동켠 창문에 훤히 비치자 마침 기다리던 살례탑놈이 변소에 가느라고 뚜벅뚜벅 거드름을 피우며 밖으로 나오는 것이였다.

바로 이 때다! 《이 놈! 고려 인민의 복수의 화살을 받아라!》 원쑤에 대한 증오에 불타는 가슴을 안고 윤후 대장은 꽂아 놓았던 화살을 겨냥하여 힘 있게 당겼다 놓았다.

마루 밑에서 뜻하지 않았던 화살이 아침 찬바람을 뚫고 번개 같이 날아 와 그 놈의 등에 박히자 원쑤의 우두머리 살례탑놈은 으악!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더니만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실로 통쾌한 순간이였다.

목적을 달성한 윤후 대장은 재빨리 몸을 피하였다.

뜻하지 않았던 고려 인민의 복수의 화살에 총 사령관의 숨이 끊어지자 적들은 겁에 질려 싸울 용기를 내지 못 했다. 이리하여 적들은 갈팡질팡 큰 혼란에 빠졌다.

이 때 고려 의병들은 윤후 대장의 지휘 밑에 원쑤들에게 계속 복수의 화살을 퍼부었으며 승리의 함성을 올리면서 돌격하였다. 침략군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고려 인민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원쑤인 살례탑의 숨통을 끊고 몽고군을 쫓아내는 길을 열어 준 김 윤후 대장의 이름은 방방곡곡에 퍼졌으며 인민들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우러러 보았다.

고려의 임금은 김 윤후 대장의 공로를 매우 칭찬하면서 그에게 《상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주었으나 그는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는 출세하기 위하여 싸운 것은 아니였기 때문이다.

다만 조국과 인민을 짐승 같은 적들의 손아귀 속에서 해방하려는 한마음으로 싸운 것이다.

그러므로 벼슬해서 인민들의 등'살을 긁어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은 그에게는 털끝 만치도 없었던 것이다. 비록 죽을 먹을지언정 인민들 속에 파묻혀 그들과 함께 웃으며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싸우며, 그들과 함께 노래 부르며 일하는 생활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일편단심 조국과 인민에게 자기의 모든 지혜와 힘을 다 바친 그는 그 후도 여러 번 빛나는 공훈을 세웠다.

1253년 몽고 침략군이 다섯 번째로 쳐들어 왔을 때도 그는 인민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다.

고려 인민들의 용감한 투쟁 앞에 쫓기운 몽고 침략군은 피묻은 발'길을 충청북도 충주성으로 옮기였다. 충주성은 중부 조선에서 중요한 도시이다. 경상도와 전라도와 경기도의 갈래'길이며 특히 경상도의 입구이다. 적들은 이 곳을 점령하고 삼남 지방으로 침략의 손'길을 내려뻗치려고 꿈 꾸었던 것이다.

적들이 삼남 지방으로 쳐 들어 가자는 것은 그 곳에서 고려 인민들의 재물을 빼앗자는 목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속심이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자 강화도로 들어 간 고려의 량반 통치배들은 그 곳에서도 삼남 지방에서 조세로 거둔 쌀과 옷감들을 바다'길로 날라다가 전쟁 전과 다름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런 것을 안 몽고군은 삼남 지방으로 쳐내려 가서 고려의 통치배들이 조세를 받아 들이는 근거지를 빼앗고 강화도와 련락하는 배'길을 가로 막자는 것이였다.

이렇게 되면 고려의 왕과 량반들이 굶어 죽게 될 것이므로 나중에는 항복하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몽고군의 북소리가 다시 들리자 여느 때는 인민들에게 호령만 치던 충주성의 량반들은 도망 치거나 성 밖에 나가서 몽고군 앞에 엎드려 항복하였다. 비겁한 량반놈들의 참을 수 없는 행동에 인민들의 가슴에서는 증오의 불'길이 타 번졌다.

나라를 사랑하는 성 안의 인민들은 원쑤를 반대하여 한 사람 같이 용감히 일떠섰다. 그들은 주로 노비와 농민들이였고 지도자는 이 때에도 역시 유명한 김 윤후 대장이였다.

쳐 들어 오는 적들을 막아 내기도 하고 따라 가 쳐 부시기도 하면서 결사적인 싸움은 계속되였다. 한 달이 지나 두 달이 지나도 적들은 물러 가지 않았다. 적들은 쓰러지고 죽어 넘어지면서도 뱀처럼 검질기게 계속 덤벼 들었다.

70여 일이 지났다. 이제는 성 안의 식량이 거의 떨어지게 되였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위험이 닥쳐 왔다. 이 때 용감한 김 윤후 대장은 목숨을 바쳐 최후의 돌격을 할 것을 애국적인 노비들에게 호소했다.

《위기는 닥쳐 왔다! 사느냐, 죽느냐의 판가리 싸움이다.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싸운다면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을 가리지 않고 모두 후하게 표창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노비들은 겁이 나서지 않았다. 윤후 대장의 이 말을 아직 믿지 못 했던 것이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그 때 노비라면 그 사회에서 가장 천한 몸으로서 천대도 제일 많이 받으며 압박도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였다.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굶어 죽지나 않을 정도로 밥을 얻어 먹고 숨이 붙어 있는 형편이였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만 하면 상을 준다.》, 《이것만 하면 살게 해 준다.》, 《이것만 하면 노비의 몸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량반들이 약속은 구수하게 하고서도 막상 그 일이 끝나면 약속을 헌신짝 같이 내버렸던 것이다. 이미 다른 량반들한테 이렇게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였던 것이다.

노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량반들이 있는 세상에서는 잘 살게 될 수 없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노비들의 마음 속을 알아차린 김 윤후 대장은 그들의 눈앞에서 당장 노비 문서를 전부 꺼내다 불살랐다. 그리고 재물을 노비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다. 그 때야 김 윤후 대장이야말로 말과 행동이 같은 지도자라는 것을 노비들은 깨달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심한 것을 뉘우쳤다.

노비들은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된 기쁨을 안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치겠다고 굳게 맹세하였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나라를 지켜 일떠선 이들에게 남의 나라를 쳐 들어 온 몽고군은 상대가 되지 못 하였다. 성난 호랑이와 고양이와의 싸움과 같았다. 용감한 인민들의 투쟁 앞에 몽고군은 할 수 없이 끝내 말고삐를 북쪽으로 돌리고 꼬리를 빼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김 윤후 대장의 지도 밑에 용감한 충주성 인민들은 피로써 성을 지켜냈으며 충주 이남의 인민들이 전쟁의 상처를 입지 않게 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에 빠졌던 나라를 건져 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원쑤를 미워 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두려워 하지 않았으며 압박 받고 천대 받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믿고 싸워 조국을 지켜 낸 김 윤후 대장의 이름은 우리 나라 력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1회)

배 풍

반달처럼 둥글게 구부러진 아담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에는 까치랑, 딱다구리랑, 휘파람새랑 모든 새들이 노래를 부르며 농사'일을 도와 부지런히 일하면서 살았답니다.

> 《반달 같이 둥그런 우리 동산은
> 모두모두 힘을 합쳐 일을 하면서
> 서로 도와 잘 사는 화목한 동산
>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추어요》

새들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모두 다래끼를 하나씩 메고 일하러 나갔지요.

까치는 농사'일을 해치는 들'쥐들과 굼벵이 같은 벌레를 사냥하구요. 딱다구리는 나무'잎과 껍질의 진을 빨아 먹거나 쉬 먹는 좀벌레와 진드기를 사냥하지요.

그리고 휘파람새랑 모든 새들도 송충이랑, 나비랑 사냥하는 일들을 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였어요.

《애들아, 어데 나가지 말고 집을 잘 보며 놀아라 응? 너희들은 아직 날개가 연약해서 허투루 나다니단 못 된 짐승들을 만나면 야단이야! 조심해라 응? 알겠니!》

하고 느티나무 우에 집을 짓고 사는 엄마까치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며 새끼까치들에게 몇 번이나 타이르는 것이였습니다.

《깟깟, 알겠어요. 엄마! 걱정 말아요.》

새끼까치들은 입술이 뾰죽납짝해서 새까만 눈으로 엄마까치를 바라 보며 일시에 대답하였습니다.

《호호호, 참 착하다. 내 일 나갔다 돌아 올 때 맛난 먹이를 많이 해 가지고 올게 잘들 놀아라 응!》

엄마까치는 귀여운 새끼들을 한번씩 돌아 보고 어데론지 날아 갔습니다. 새끼까치들은 엄마까치가 배워 준 노래도 부르고 포드득포드득 나무'가지 우로 날기 련습도 하면서 재미 있게 놀았습니다.

《애들아, 난 저 땅에 내려 앉았다 날아 올 수 있어!》

하고 제일 오돌지고 담차게 생긴 까치새끼가 말하였습니다.

《애, 그런 소리 말어! 너 그러다 어쩔려고 그러니? 엄마가 어데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하잖았니?》

《그래도 난 어서 저 하늘을 날고 싶어!》

《체, 그런 소리하다 큰'일 날라고 그래.》

하며 까치새끼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야단쳤습니다. 바로 이 때 개'버들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새끼개구리가 까치새끼들의 말을 듣고 다락집 문을 발딱 열고 느티나무 우를 바라 보았습니다. 까만 록두알처럼 톡 삐여져 나온 두 눈을 깜빡거리면서 말이지요.

《애해해! 까치새끼들이였구나!》

새끼개구리는 엄마개구리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지요. 개구리가 무슨 일을 하냐구요?

엄마개구리는 새들과 같이 농사'일을 부지런히 돕고 있답니다. 논'배미에 들어 가서 푸르싱싱 자라는 벼포기 사이로 흙밥을 들춰 주기도 하고 벼를 망쳐 먹는 곤두벌레를 사냥해 주기도 했지요.

새끼개구리는 까치새끼들과 한번 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새끼개구리는 다락문을 꼭꼭 닫아 걸고 풀숲으로 훌쩍 뛰여 내려 느티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까치야, 까치야!》

새끼개구리는 돌멩이 우에 난짝 올라 서서 입에다 손을 대고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까치새끼들은 눈이 동글해서 모두 내려다 보았습니다.

《애해해, 나다 나야! 난 너희들의 멋진 노래를 듣고 왔어!》

《깟깟, 그래 넌 누구냐?》

까치새끼들은 새끼개구리를 보고 사뭇 재미 있게 생겼다는듯 까만 눈들을 또록거리며 물었습니다.

《애해해, 너흰 올 봄에 갓 낳았으니까 날 모를 거야! 난 작년 가을에 난 개구리니까!》

《뭐 개구리? 그래 너희 집은 어데냐?》

《우리 집 말이냐? 우리 집은 저 논'둑에 있는 개'버들 밑에 있지. 우리 집은 다락집이란다.》

《뭐, 다락집? 다락집은 또 어떻게 생겼니?》

《애해해, 우리 집은 참 멋 있게 졌어! 우리 엄마하구 나하구 진 거야!》

《야! 참, 한 번 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제일 오돌지고 담차게 생긴 까치새끼가 날개를 포드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얘, 우쭐대지 말어! 넌 또 그런 소리하다 야단 날라고 그러니?》

하고 다른 까치새끼가 그런 쓸데 없는 소린 하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체, 너희들 좀 볼테냐? 난 이제라도 날아 갈 수 있다니까!》

하고 참을성 없는 오돌진 까치새끼는 날 좀 보란듯 두 날개를 펴고 호드득 땅우로 내려 앉았습니다.

《아유! 저거 어쩔려고!》

《저런!》

까치새끼들은 모두 겁이 나서 몸을 움츠러뜨리며 파르르 떨었습니다.

《깟깟, 얘들아! 나 개구리네 집을 보고 올게 집에 있어!》

하고 땅 우에 내려 앉은 까치새끼는 장한듯이 포드득포드득 날아 갔습니다.

《애해해, 넌 정말 용감하구나! 나두 용감한 동무가 제일 좋아!》

새끼개구리는 입을 헤벌리고 까치새끼를 따라 홀짝홀짝 뛰여 갔습니다.

바로 이 때였습니다. 언제나 개구리와 새를 노리고 있는 뱀이 논'두렁을 슬슬 기여 오다 새끼개구리와 까치새끼가 오며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 《옳지! 요놈들!》 하고 뱀은 개구리네 집이 있는 개'버들 숲으로 살짝 숨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대가리만 살짝 내놓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말이지요.

《냠! 오늘이야 한 밥 생겼구나! 두 놈이 다 맛 있게 생겼는 걸! 그렇지만 두 놈을 한꺼번에 먹어 치울 수는 없지! 개구리야 늘 잡아 먹는 놈인데 까치부터 먹어야지! 냠, 정말 고놈의 까치새끼가 포동포동하게 살이 졌는 걸!》

하며 뱀은 표독스러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까치새끼를 노리며 어서 더 가까이 날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지요.

하지만 새끼개구리와 까치새끼는 세상 모르고 그저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얘, 까치야, 인제부텀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와 응? 나도 너희 집에 자주 놀러 갈 게!》

《응! 우린 정말 친한 동무가 되자 응?》

《그럼! 우리는 이 행복한 동산에서 친형제처럼 지내야 돼! 엄마랑 아빠랑은 모두 일하러 가고 우린 집을 보면서 말야 응?》

《응!》

하며 까치새끼와 새끼개구리는 바로 뱀이 지키고 있는 앞으로 막 다가 갔습니다.

까치새끼는 처음으로 날아 보기 때문에 할딱할딱 숨이 찼습니다. 한 번 나래를 펴고 포드득 날고는 땅 우에 주저앉고 또다시 날아 가군 하였습니다.

《얘, 난 숨이 막 차구나!》

《애해해, 이젠 다 왔어!》

하며 새끼개구리와 까치새끼가 개'버들 숲에 와 닿았을 때였습니다. 뱀은 바로 이 때라고 갑자기 대가리를 곧두 세우고 살 같은 혀를 빼 들며

《요놈들, 꼼짝 말고 섰거라!》

하고 입에서 독기를 뿜으며 장작개비처럼 일떠서서 달려 들었습니다.

《에그머니! 까치야, 어서 날아라!》

새끼개구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논'배미로 뛰여 들면서 까치새끼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까치새끼도 깜짝 놀라 파르르 떨면서 날개를 펴고 포드득 날았습니다. 하지만 가뜩이나 숨이 찼던 까치새끼는 얼마 날 수가 없었지요. 표독스럽게 생긴 뱀은 장작개비처럼 몸을 일떠 세우고 쏜살같이 달려 들었으니까요.

《깟깟! 깟깟!》

까치새끼는 모든 힘을 다해서 깟깟 엄마를 부르짖었으나 더는 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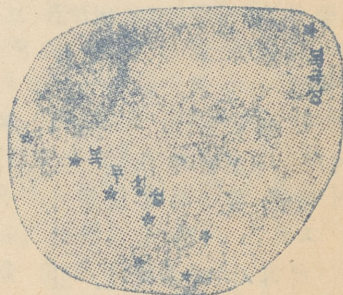
북두 칠성과 북극성을 어떻게 찾을가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이 캄캄한 밤에 방향을 알아 낼 수는 없을가요?

북극성을 찾으면 됩니다. 북극성은 언제나 북쪽 하늘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북을 알면 동, 서, 남을 자연 알게 됩니다. 그럼 북극성을 찾아 봅시다.

먼저 북두 칠성을 찾아야 합니다. 북두 칠성은 북쪽 하늘 지평선 가까이에 보이는 일곱 개의 별입니다. 뭇별이 반짝이는 북쪽 하늘을 살피느라면 일곱 개의 별이 눈에 띄이는데 별과 별 사이에 금을 그어 련결하면 국자 모양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북두 칠성입니다.

인제는 북극성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북극성은 북두 칠성의 1과 2를 련결한 직선 방향으로 1과 2의 사이에 거리의 5배 가량 되는 거리에 가서 있는 별입니다.

이 북극성은 자기의 위치를 거의 변동하지 않으면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북극성은 방위를 알아 내는 데 리용되고 있습니다.

주인 동무! 안녕하세요?

나는 주인 동무의 배 안에 있는 위입니다.

오늘 나는 주인 동무에게 나를 꼭 알려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씁니다.

동무가 혹 알고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로는 식도와 달려 있고 아래로는 십이지장과 잇닿아 옆으로 누워 있는데 마치 길쭉한 주머니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나의 크기는 20 센치 메터 정도이며 1~2ℓ의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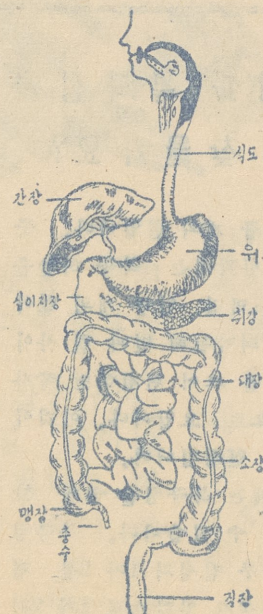
나의 집 벽은 얇은 막으로 덮여 있고 그 곳에서는 위액이라는 물질을 내보내는 작은 구멍들이 있습니다. 위액 속에는 영양 물질이 사람에게 흡수되게끔 하는 효소라는 물질들과 염산이 들어 있습니다. 동무가 식사를 하여 5~9 분이면 위액이 위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 나오는지 동무는 모를 거예요. 동무가 무슨 음식에 대해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맛있는 음식을 본다든가 또는 음식 냄새를 맡으면 군침이 나오는 것과 같이 나의 몸에서도 이 때 위액이 나오게 된답니다. 위액이 얼마나 나오는가구요?

이 량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음식물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밥을 먹었다면 물을 마셨을 때보다 그 량은 훨씬 많답니다.

소화 기관

이렇게 나온 위액은 나의 집으로 들어 온 음식물과 섞여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운동을 할 때 음식물을 잘게잘게 부스러지게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마치 미음과 같이 만듭니다. 음식물을 죽처럼 풀어지게 빻아야만 거기에 들어 있는 영양분을 빨아서 온 몸에 보내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대체로 나는 입에서 음식물에 섞여 내려 온 침과 내게서 나오는 위액으로 소화를 시킵니다. 내게서는 다만 사탕과 약간의 알콜의 일부만을 빨아 들이고 십이지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방을 빨아 들이고 소장에 보내지요. 소장에서는 탄수화물은 단당류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으로 제각기 분해하여 흡수합니다. 그리고 대장에 가서 수분을 빨아 들이고 나머지는 가스(대변)로 내보내게 됩니다.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운동하는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바깥벽은 가로, 세로 그리고 비스듬이 누운 세 개의 근육들로써 단단하게 꾸며졌습니다. 음식물이 들어 오면 나는 우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물'결치듯이 (파도 모양으로) 운동하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스러뜨리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음식물이 들어 와서 약 3~10 시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는 나의 몸에서 나오는 위액 속에 있는 염산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염산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소장이나 대장으로 내려 보내는 데서와 위 속에 들어 온 세균들의 활동을 억누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는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동무에게 편지를 하려는 사연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동무는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굴면서 학교도 가지 못 하였는데 왜 그렇게 되였는지 아세요.

어제 동무의 할머니가 떡을 가지고 왔었지요? 그 때 동무는 아버지, 어머니가 잡수시기도 전에 어지러운 손으로 떡을 덥석 쥐여 먹었지요? 그 때 손에 묻어 있던 수천만 개의 세균들이 떡과 함께 내게 들어 왔어요. 물론 내게 세균이 들어 올 때 식도와 입의 중간부 우에 있는 인두에서 그들과 싸우는 것을 나도 보았어요. 그러나 세균은 인두에서 승리하고 내게까지 기여 들어 왔어요. 또 입 안을 양치질도 하지 않고 먹었으니 입 안에서 번식하고 있던 세균들도 음식물과 함께 들어 왔습니다. 나는 위액 속에 있는 염산을 더 많이 내보내여 많은 세균을 죽이기는 하였습니다.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동무인 간장까지도 동원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도 세균이 많이 들어 왔던지 끝내 다 죽이지 못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또 그 때 동무는 위가 어떻게 되든지 맛있다고 제대로 씹지도 않고 막 넘기기만 하였지요? 그러니 입에서 하던 일을 내가 더 하여야 하였고 나의 집 안에는 떡이 가득 차고 뿔어 나서 척 늘어지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운동하기도 곤난하게 되였고 음식은 식도에까지 꼴깍 차서 도로 입으로 넘어 날 지경이 되였던 것이지요.

동무가 이렇게 음식을 지나치게 먹었기 때문에 나는 옆 동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소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선 폐가 숨을 쉬기 바쁘니 올려 밀지 말라고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나는 너무 바빠서 입에다 련락을 했지요. 그만 넘겨 보내라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입은 말하기를 주인 동무가 미처 씹지도 않고 자꾸 넘겨 치우는 걸 자기인들 어떻게 하는가고 오히려 짜증을 내잖겠어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하였으면 좋을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한 집안인 나의 벽에 있는 점막들까지도 야단을 하지 않겠어요. 입에서 씹지 않으니 돌 혹은 굳은 음식물들이 함께 들어 와서 운동을 할 때에 벽의 점막을 다치여 피가 나온다고 말입니다.

이리하여 그 날 나는 끝내 불어날 대로 불어나서 배꼽 밑으로 척 내려 드리워져서 운동을 마음 대로 할 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견디다 못 해 뻔히 알면서도 채 소화되지도 않은 음식물을 소장에 내려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지요.

그러니 또 소장, 대장은 내가 음식을 잘 부스러뜨리지 않아 영양 물질을 빨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냥 밑으로, 밑으로 내려 보냈지요. 그러니 동무는 설사를 만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소에 나다녀야 하였지요. 그 좋은 영양물은 하나도 피와 살로 되지 못 하고 모두 그냥 밖으로 내보냈으니 정말 아수하기 짝이 없는 일이였지요.

내가 고통을 겪은 것은 그 날 뿐이 아닙니다. 동무는 여느 때도 늘 밖에서 정신없이 놀다가는 학교 갈 시간이 다 돼서야

돌아와서 바삐 밥을 먹고는 뛰여 나가는데 이 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때 나는 물론이고 몸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기관들도 열성스럽게 일하려고 하지만 너무도 급하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이 미처 제 작용을 하지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밥알이 코로 도로 튀여 나가 재채기를 하는가 하면 언치워서 배를 붙들고 아프다고 울면서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만 앞으로는 식사는 천천히 하여야 합니다.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언제나 몸에 맞게 적당하게 하며 음식물을 오래도록 씹어야 합니다. 음식은 씹을수록 입에서 타액이 더 많이 나와 맛은 더 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20 회 정도는 씹어야 합니다. 이래야 소화도 잘되고 따라서 영양 물질도 제대로 흡수되며 동무가 앓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난 김에 한 마디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동무가 식사할 때 항상 짠 것을 좋아하는데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몸이 건강하자면 일정한 정도의 짠 염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무처럼 너무 짠 것을 많이 먹으면 몸이 화끈 달아 해롭습니다. 몸이 달아 오르니 자연히 물이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집에는 물이 가득 차서 다른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그 영양을 제대로 빨아 들이는 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또 배가 아프게 되지요. 짠 것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누어야 하니 신장에는 또 얼마나 큰 부담을 주게 되는지 아세요?

물론 너무 싱거운 음식만 먹어도 도리여 나쁩니다. 언제나 간을 알맞춤하게 맞추어 먹어야 하지요. 그리고 또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면 이것은 나의 벽에 있는 점막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눈을 비롯한 다른 기관에 해를 준답니다. 때문에 짠 것, 매운 것 그리고 더운 것, 찬 것 등을 잘 가려서 언제나 알맞춤하게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위'병이나 또는 다른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음식을 제 시간에 맞춰 먹지 않거나 아무 때나 심심하면 먹는 것은 아주 나쁩니다. 이미 들어 온 음식물을 다 소화시키지도 못 하였는데 또 새로운 음식물이 자꾸 들어 오기 때문에 나는 도무지 쉴 짬이 없어집니다. 나도 피로를 좀 풀어야 제대로 일할 게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나는 자연히 내가 맡은 임무를 다하지 못 하고 병에 걸리게 된답니다.

또 식사를 제때에 하지 않아도 해롭습니다. 때문에 식사는 보통 5~6 시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하는 것도 나쁩니다. 언제나 일정한 량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술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무에게 말할 것은 다른 기관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약해져서 만약 위'병에 걸린다면 다른 모든 병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약하면 동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것을 피와 살로 만들지 못 하게 되니까 말이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합니다.

— 위로부터 —

렴재 그림

오누이

(5 회)

글—허 일 그림 맹동원

⑱ 선주놈은 벼랑 밑에 배를 대 놓고 폭발 화약을 가지러 간 아들 칠석을 초조하게 기다린다. 여우 같은 마누라는 자기들의 세상이 뒤집힌 데 대하여 가슴을 치며 분해 한다. 선주놈은 《념려 마오, 이제 미국 어른들을 모시고 다시 주인 노릇할 때가 올 것이요.》 하며 독기에 찬 눈으로 포구를 바라 본다. 오늘도 바위에서 오빠를 그리던 봉숙이가 그들의 음모를 엿듣고 이를 악문다.

⑲ 선주놈이 짐을 실으려고 사라진 틈을 타서 봉숙이는 자위대 아저씨에게 알리려고 달려 간다. 이 때 화약을 가지고 달려 오던 칠석과 마주친다.

봉숙은 있는 힘을 다하여 빠져 나가려고 했으나 끝내 선주놈과 칠석에게 붙잡힌다. 선주놈은 봉숙을 남조선에 데리고 가서 팔아 먹겠다고 배로 끌고 간다. 끌려 가며 모대기던 봉숙에게서 모자가 떨어진다.

⑳ 봉숙을 배에 실은 선주와 칠석은 빨리 선창을 폭파시키고 떠나자고 하면서 솔밭 사이로 숨어 가며 선창'가로 접근해 간다. 선주의 마누라는 발각되지나 않나 해서 초조해 하다가 다시 배 있는 곳으로 사라진다. 긴장되고 위험한 순간이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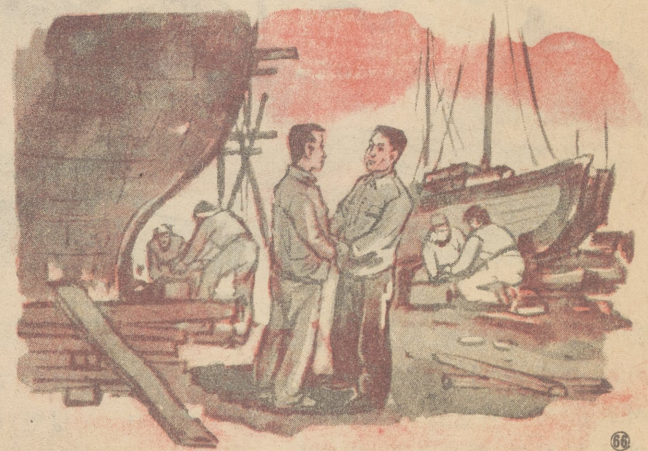
⑥① 고향 마을에 들어 선 봉일은 흥분에 휩싸여 그간 못내 그립던 포구를 바라 보며 말한다.《아저씨, 봉숙이도 이젠 몰라 보게 컸겠지요? 그리고 저 바다만 봐두 왜 그런지 기운이 솟는 것 같아요.》 성호 아저씨는《그러기에 고향은 언제나 어머니 품이라지, 이제는 마음 놓고 실컷 일해 보세.》 하면서 빨리 봉숙이를 찾아 집으로 가자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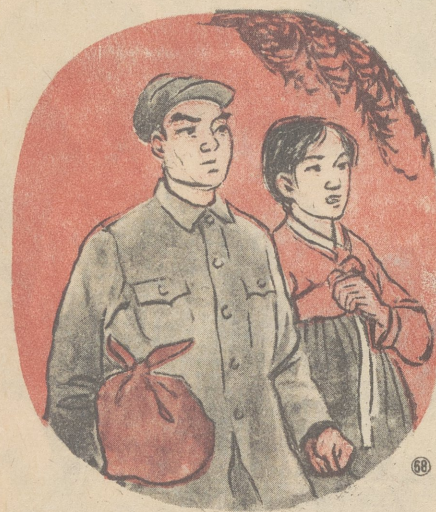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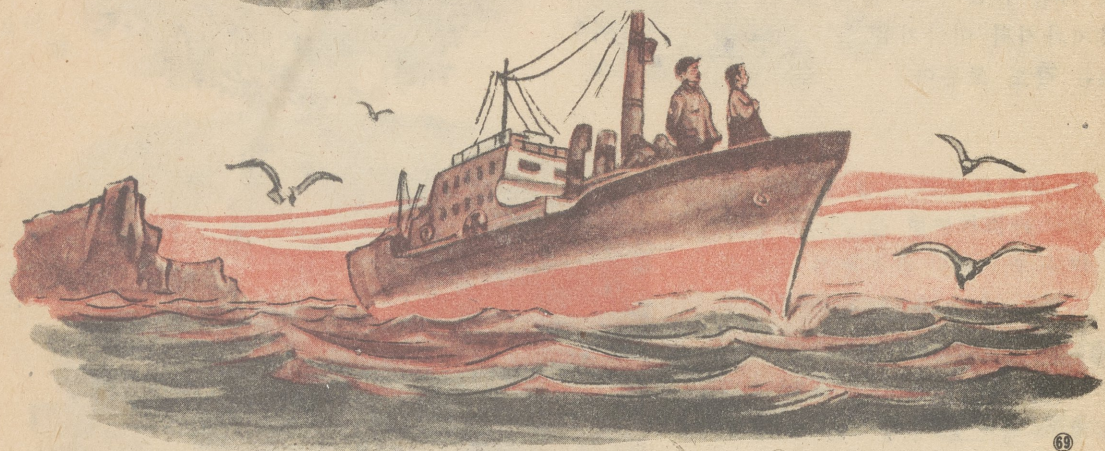
⑥② 마을로 발'길을 옮기던 봉일은 땅에 떨어진 모자를 발견한다.《이건 우리 어머니가 사다 준 거예요, 보세요, 선주가 찢은 자리를 꿰맨 게… 이 모자가 왜 여기 떨어졌을가?》하고 사위를 살핀다. 이 때 선창'가에서 총'소리가 들려 온다. 성호 아저씨는 봉일이에게 망을 보게 하고 급히 선창'가로 달려 간다.

⑥③ 경각성 높은 자위대에게 발각된 선주놈은 헐떡거리며 달려 온다. 그는 칠석을 내버려 두고 마누라와 함께 배에 올라 도망치려고 한다. 선주놈을 발견한 봉일은 치솟는 증오로 하여 용감하게 달려 든다. 선주놈은 총을 꺼내 봉일을 해치려고 한다. 그러나 억세게 자란 봉일은 그를 굴복시키고야 만다.

⑥④ 한편 선창'가로 달려 간 성호 아저씨는 자위대원 아저씨들과 함께 칠석과 지주놈의 아들을 체포한다. 그리하여 선주놈의 꿈은 깨여지고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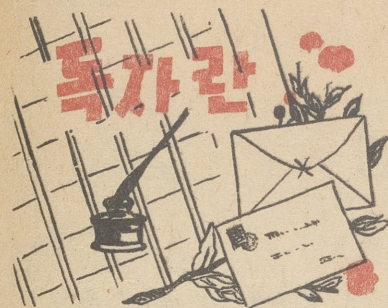
⑥⑤ 모진 고통과 굶주림과 시달림 속에서 서로 헤여졌던 오누이는 해방된 새 나라에서 비로소 마음 놓고 다시 만나게 된다. 달'빛도 휘황한 바다'가 바위터에서 그들은 정답게 나란이 앉아 지나 온 나날. 쌓이고 쌓인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주고 받느라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른다.

⑥⑥ 포구는 일제와 선주놈이 마사 놓은 배를 복구하는 어로공 아저씨들의 힘찬 투쟁으로 흥성거린다. 봉일이도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일'손을 다그친다. 그는 오늘도 자기 책임량을 곱절이나 한다. 이때 수산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으로 된 성호 아저씨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다.

⑰ 그것은 봉일이와 봉숙이를 평양 초등 학원에 입학시키라는 당의 지시였다. 오누이는 두말 할 것 없이 온 마을이 감격에 들끓는다.

이제야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대로 마음껏 공부하게 되였기 때문이다. 성호 아저씨는 말한다. 《당과 김 일성 장군님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라고.

⑱ 봉일은 평양으로 떠나는 날 어머니가 사다 준 모자를 쓴다. 모두들 작아서 안 되겠다고 새것을 쓰라고 한다. 그러나 봉일은 《아니예요, 작아두 일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머니는 내가 이 모자를 쓰고 학교에 가지 못 하는 것을 원망하시면서 왜놈에게 끌려 가셨어요. 이제는 떳떳이 써야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당의 아들이 되겠어요.》 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진다.

⑲ 포구는 명절과 같이 흥성거린다. 봉일이와 봉숙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어로공 아저씨들의 손에 의하여 복구된 기관선을 타고 평양으로 떠난다.

그들의 희망과 기쁨에 찬 마음인양 푸른 바다가 밝은 태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출렁인다.

(끝)

나는 나는 다시 한 번 살펴 보지요.
청년 동맹원 언니, 오빠들의 가슴에
빛나는 《사·로·청》 휘장을…

나도 어서 빨리 청년 동맹원 되여
영예의 휘장을 달고 싶어요.
보기만 해도 환히 빛나는 휘장.

그 휘장 속에 당의 후비대
《사·로·청》 언니, 오빠들의
붉은 마음 아로새겨져 있고,

백두의 붉은 뜻 이어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 꾸며 갈
언니 오빠들의 굳은 맹세 깃들어 있어요.

아! 영광스러운 당의 후비대!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울리는 이름입니까!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교대자—소년단원
나도 나도 배우며 준비해요.
소년단 휘장 달던 앞가슴에…
《사·로·청》 휘장 달 그날 그리며.

평양시 삼마 중학교
중등반 3학년 김 옥선

알아두기

△ 메트르법 몇 가지의 뜻

길이나 부피, 넓이 무게 등을 재는 메트르법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같이 기본 단위의 명칭에다 킬로, 헥트, 쎈치 등의 말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무엇일가요?

킬로 (Kilo) 《천》 이라는 뜻.
헥트 (hecto) 《백》 이라는 뜻.
데카 (deca) 《십》 이라는 뜻.
데시 (deci) 《십 의 10분의 1》 이라는 뜻.
쎈치 (centi) 《백분의 1》 이라는 뜻.
밀리 (milli) 《천분의 1》 이라는 뜻.

△ C, G, S 단위란 무엇일가요?

C, G, S 라는 것은 말을 간략한 것입니다.

즉 기본 단위로서 길이에는 쎈치 메터, 질량에는 그람, 시간에는 초를 사용합니다.

길이의 단위 쎈치 메터…Centimeter (영어)
질량의 단위 그람…Gram (영어)
시간의 단위 초…Second (영어)
의 첫 글자들 C, G, 및 S를 따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단위들은 이 C, G, S 단위를 토대로 하여 쓰입니다.

(동시)

걸어 온 길 걸어 갈 길

이른 아침 일터로 나갑니다.
가슴마다 사. 로. 청 휘장 빛내며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들
일터로 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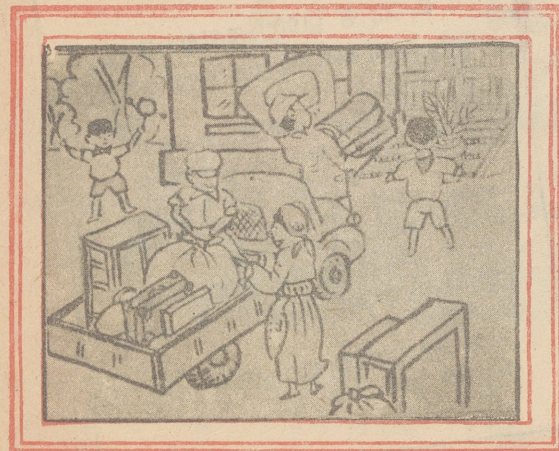
휘장 속에 새겨진 붉은 기'발
그 기'발 따라 오빠, 언니들
걸어 온 길 자랑스럽고
걸어 갈 길 보람찹니다.

걸어 온 길 18 년을 빛나게 총화한
민청 제 5 차 대회!
대회에서 하신 원수님의 말씀 받들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들 나아갑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들이 가는 길 태산도 막지 못 하고
그들이 나가는 앞에서는
강물도 비껴 흐릅니다.

그들을 따라, 사. 로. 청 오빠, 언니들 따라
소년단원 우리들도 나아갑니다.
지, 덕, 체 훌륭히 갖추며
당이 부르는 길, 공산주의 그 날을 향해…

평양시 교구 중학교
중등반 3 학년 신 정숙

우리들의 그림

함흥시 본궁구역 룡흥 중학교 박 명철

함남도 함주군 동암 중학교 김 영기

작문

자랑스러운 우리 언니

저녁 식사를 치른 우리 집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언니가 돌아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민청 제 5 차 대회에 참가하셨던 언니가 돌아 오시는 날입니다.

(언니가 오시면 무슨 이야기부터 해 달랠가?)

이렇게 궁리하고 있는데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가 오시는구나.) 나는 벌떡 일어나서 《언니!》 하고 웨치며 맞받아 나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 그런데 언니가 아니라 이웃집 아주머니가 들어 오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찌나 무안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부끄러워 그러는데 글쎄 우리 집 식구들은 자꾸만 웃어서 나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 했습니다.

밤이 이슥해서였습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내가 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어느새 벌써 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 오셨습니다.

《상기들 안 주무시였구만요. 그 동안 무고들 하셨어요? 너 앓지 않았니?》

내가 언니의 가방을 받는데

《아니 이건 무엇이냐?》 하고 어머니는 보자기 꾸러미를 받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회에서 받은 선물이예요.》

가방을 뒤적이던 어머니는 그 속에서 큰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큰 사진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교과서의 배나 되리 만큼 큰 것이였습니다.

김 일성 원수님을 모시고 대회 참가자들이 찍은 기념 사진이였습니다.

맨 앞 줄 한복판에 김 일성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확 안겨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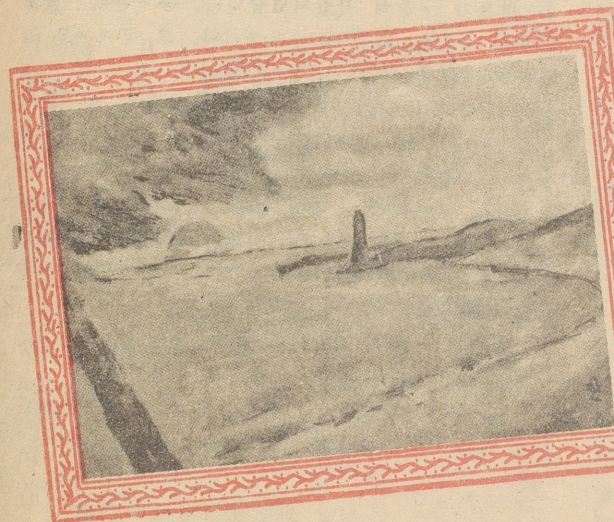
(우리 언니가 원수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었구나!)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훑어 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야!》 하고 환성을 올렸습니다.

아래서 네 번째 줄에 우리 언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언니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이 때처럼 언니가 부러워 진 때는 없었습니다.

사진을 들여다 보는 온 집안 식구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과 감격의 빛이 어렸습니다.

함남도 함주군 동암 중학교 한 상환

황북도 황주군 내외 중학교 로 창명

언니는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보고 들은 감격적인 이야기를 밤새껏 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밤 가는 줄도 모르고 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서 빨리 커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 되고 언니처럼 동맹 조직 생활을 잘 하고 훌륭한 혁신자가 돼서 대회에 참가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기어이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 되기 위해 학습과 소년단 생활에서 더욱 모범이 되리라고 마음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하였습니다.

평양시 서문 중학교 중등반 **문 정숙**

(작문)

새로 만든 분단 벽보

아침이였습니다.

오빠가 세면장으로 나간 틈을 타서 나는 오빠의 옷 저고리에 달린 《사·로·청》 휘장을 살짝 떼서 내 가슴에 달아 보았습니다.

앞 가슴에 뻔쩍뻔쩍 빛나는 사·로·청 휘장을 달고 다니는 오빠가 부러워서 나는 한 번 떼 달아 보리라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쳐 보았습니다. 붉은 넥타이를 풀고 가슴에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휘장을 다니 내 몸이 더 름름해 보이는게 정말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같았습니다. 나는 휘장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붉은 기폭 속에 낫과 마치, 붓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백두산 천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붉은 기폭 밑에는 책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 《사·로·청》이라고 쓴 금'빛처럼 빛나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힘차게 돌아 가는 기계의 치차와 누렇게 무르익은 벼이삭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승화도 청년 동맹원이 되고 싶은 모양이지?》 어느새 들어 오셨는지 뒤에는 오빠가 와 서 계셨습니다. 나는 오빠한테 들킨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대답도 못 했습니다.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 되려면 공부를 잘 하구 우선 소년단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소년단 조직에서 맡은 일을 잘 해야 한다. 그래야 이 휘장을 달 수 있어.》

오빠의 이 말씀에 나는 마음 속에 지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단 벽보 주필로 선거를 받은 지 한 달이 넘도록 나는 아직 분단 벽보를 한 번도 발간하지 못 했습니다.

나는 종일 벽보 만들 생각을 하느라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는 분단 벽보 편집 위원들을 모아 놓고 토론했습니다.

《애들아! 이 번 호는 민청 제 5 차 대회의 성과를 축하하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오빠, 언니들의 앞길을 밝히신 원수님의 말씀을 싣자. 그리구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나아가는 오빠, 언니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기쁨과 감격, 새 결의들을 편집하면 어때?》

동무들은 나의 의견이 좋다고 모두 찬성했습니다. 다른 동무들은 몇 가지 좋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나는 분공을 주었습니다.

《청년 동맹원이 되려면 조직에서 맡은 일을 잘 해야 된단다.》

나는 아침에 오빠한테서 들은 이 말을 동무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무들은 맡은 글들을 다 써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편집했습니다. 글을 곱게 쓰는 혜민 동무는 기사를 옮겨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금자 동무는 새로 나온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의 기'발과 휘장들을 곱게 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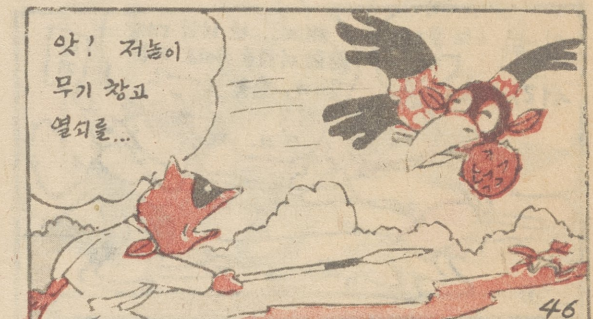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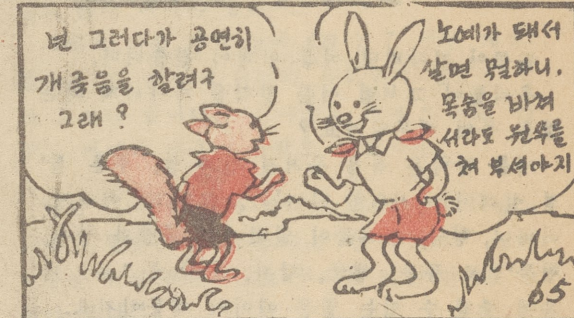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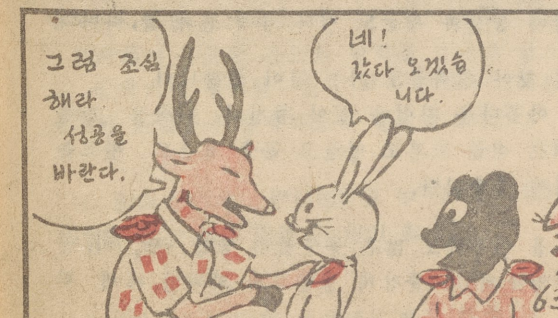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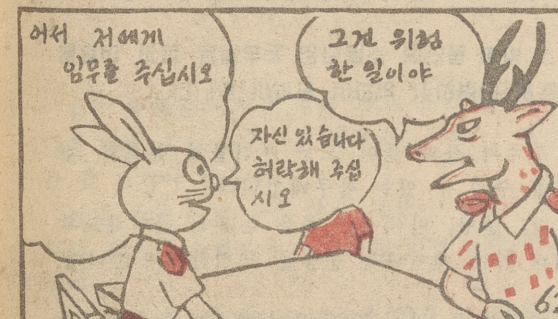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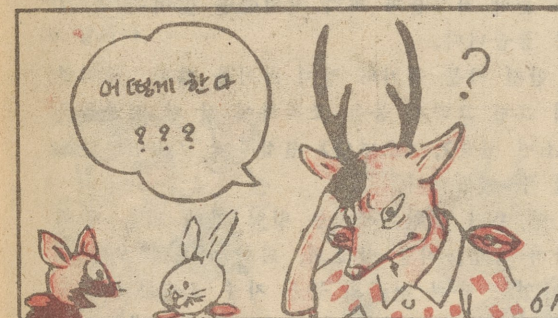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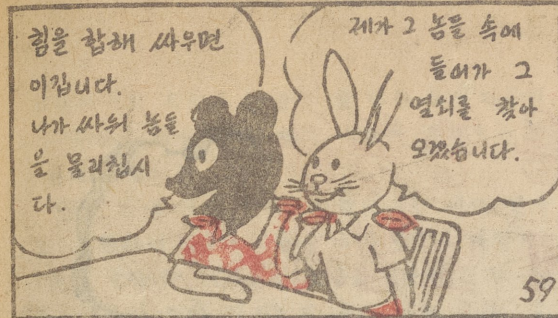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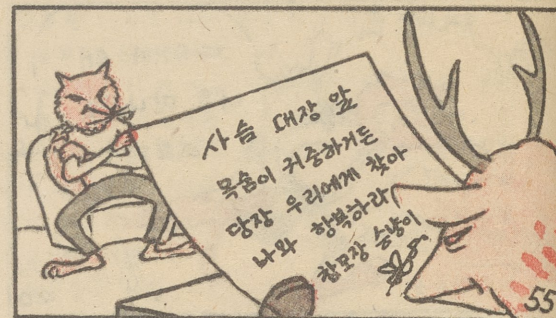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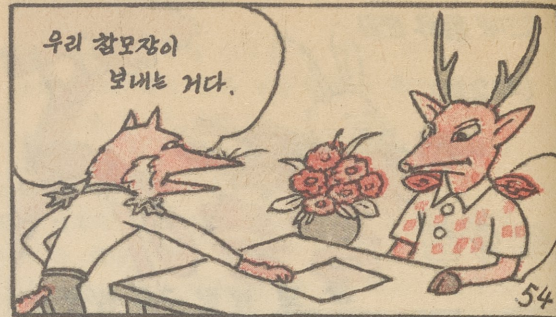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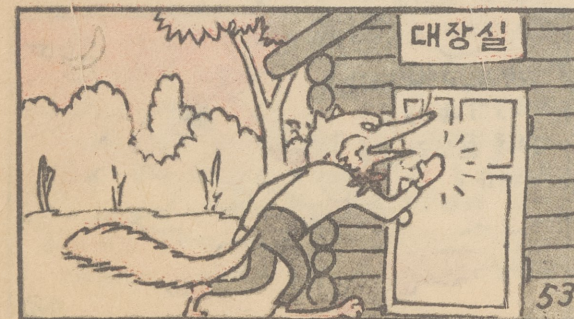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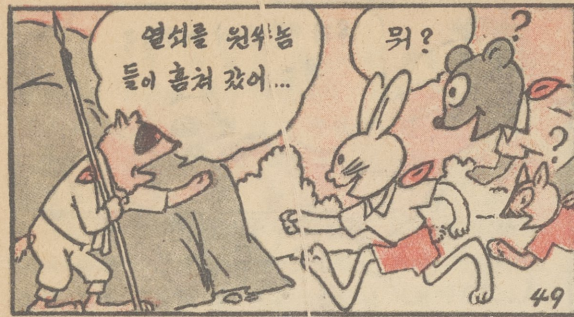
벽보가 훌륭히 편집되였습니다. 동무들이 벽보에 쓴 글들이 모두 잘 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무들의 눈을 끈 것은 동시 《빛나는 사·로·청 휘장》이라는 제목 밑에 김 선희 동무가 쓴 글이였습니다. 정말 나의 눈앞에는 오빠, 언니들의 씩씩한 모습이 환히 안겨 왔습니다.

나도 오빠처럼 소년단 생활을 거쳐 훌륭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이 되리라는 불타는 결의로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원 오빠, 언니들의 뒤를 따라 앞으로!》란 기사를 썼습니다.

선생님은 분단 벽보를 보시고 글도 그림도 편집도 다 잘 되였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벽보를 내놓으리라고 나는 마음 속으로 결의를 다지였습니다.

평양 삼마 중학교단
제4분단 벽보 주필 **한 승화**

승냥이는 단결된 동산의 주인들이 무서워 감히 들어 오지 못 한다.

적진으로 들어 가는 깡충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호에 계속)

김 달 모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방학이 왔습니다.

우리들이 그처럼 여름 방학을 기다리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가요?

여름 방학은 록음 우거진 산과 들, 푸른 물'결 설레이는 시원한 바다'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들이 일하시는 공장과 광산, 협동'벌로 등산, 행군, 답사, 견학 등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좋은 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처럼 즐거운 여름 방학의 한때를 어떻게 보낼가요?

△ 방학 간에도 소년단원의 첫째 가는 임무인 공부를 잘 하여야 합니다.

방학이라고 해서 그저 뛰놀기만 하면서 귀중한 나날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숙제 공부를 매일매일 하지 않고 있다가 방학이 거의 끝날 무렵에야 되는 대로 해치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방학 간에도 모두 하루 생활표를 잘 세워 공부도 하고 즐겁게 휴식도 하여야 합니다.

숙제 공부는 반드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힘으로 숙제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 동무들과 의논도 하고 또 상급 학년의 도움을 받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방학 동안에 특히 뒤떨어진 과목 학습을 추켜 세울 수 있도록 그 과목 학습을 더 열심히 하여야 합니다.

단, 분단 위원회와 반에서는 방학 간 계획에 따라 방학 숙제를 잘 하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다져 나가도록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사업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원 동무들은 누구나 다 방학 간에 많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방학 간 독서 계획을 세우고 《소년 신문》, 《소년단》을 빠짐 없이 읽으며 《세상에 부럼 없어라》, 《길 동무》, 《소년 과학》 등 문학 서적들과 과학 서적들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작문 짓기와 편지 쓰기를 많이 조직하며 그림 그리기 등을 조직하여 잘 된 작품들은 《소년 신문》, 《소년단》 편집부에 보내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분단 위원회에서는 방학 간에 읽은 책 이야기 모임, 작문 발표회, 과학 이야기 모임, 재간 있는 솜씨 전람회 등을 자주 조직하여 배운 지식을 쓸모 있게 다져 나가도록 합시다.

△ 방학 동안에 소년단원 동무들은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조국의 산과 들이 모두 우리들의 휴식의 한때를 즐길 수 있는 활무대입니다.

단, 분단, 반에서는 몸을 튼튼히 단련하도록 여러 가지 재미나는 운동을 조직하여야 합니다.

단, 분단, 반이 한데 모여 명승지와 고적지를 찾아 등산과 행군도 떠나 가며 산과 들, 바다'가를 찾아 원족들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 등산과 원족을 갔을 때는 식물 표본도 만들고 곤충 표본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올 여름에도 많은 동무들이 중앙, 도, 시, 군 야영소에 가 즐겁게 생활하게 되지만 매개 학교들에서도 모두가 산 좋고 물 맑은 경치 아름다운 곳에서 야영의 한때를 마음껏 즐기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방학 간에 단과 분단, 반들에서는 체육 경기도 진행하며 산과 들에 나가 《진지 빼앗기》, 《고지 빼앗기》, 《척후병 놀음》, 《방위 판정 놀음》, 《산야 횡단 경기》 등 흥미 있는 군사 유희들을 많이 조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웃 학교 소년단원 동무들과 《친선 행군》도 하며 여러 가지 재마나는 친선 경기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방학 간에 강'가와 호수'가, 바다'가에서 누구나 다 헤염도 치고 자맥질도 하며 수영 경기, 뽀트와 욧트 경기 등을 하면서 물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의 용사들처럼 배를 타고 수기 신호도 하며 모래 밭에서 모래찜도 하면서 몸을 튼튼하게 합시다.

방학 동안은 이처럼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사업을 통해 몸을 튼튼하게 단련하는 한편 위생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 몸과 자기 집을 항상 깨끗이 거두며 파리와 모기 등 유해로운 곤충들을 잡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고 랭수를 함부로 마시거나 익지 않은 실과들을 따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튼튼한 몸으로 방학을 보내고 앞으로 새 학기에 실시할 인민 체력 검정 때는 모두가 소년급에 합격하도록 준비합시다.

△ 방학 동안에 소년단원들은 누구나 다 나라와 인민을 위해 좋은 일을 더 많이 합시다.

소년단원들은 방학 동안에도 계속 민청 제 5 차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잘 학습하고 전국 모범 소년단 열성자 대회에서 결의한 일들을 더 잘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민청 제 5 차 대회 보고 내용을 선생님과 상급 학년의 도움을 받아 잘 알도록 힘쓰며 《소년 선전 예술대》를 잘 준비하여 대회 결정 실행에 나선 형님, 누나들을 위안해 드리는 일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 간에 《꼬마 7 개년 계획》 활동을 더 잘 하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와야 합니다. 산나물도 캐며 약초도 가꾸고 거리와 마을에 꽃밭도 가꿉시다.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도와 집도 보고 가축도 돌보는 등 힘에 맞는 일을 하며 집과 마을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는 일을 맡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감을 만들어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 동생들에게 선물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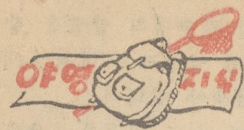
이처럼 방학 간 생활을 재미 있게 하려면 단, 분단 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며 반 사업을 잘 해야 합니다.

방학 간에도 자주 단, 분단, 반에서 할 일들을 의논하고 사업 경험을 나누며 내세운 일들을 총화하고 잘 된 것과 못 된 것을 가려서 총화해 주어야 합니다.

매개 소년단원들이 매일 자기의 하루 생활을 스스로 총화하여 보며 맡은 일은 어김 없이 실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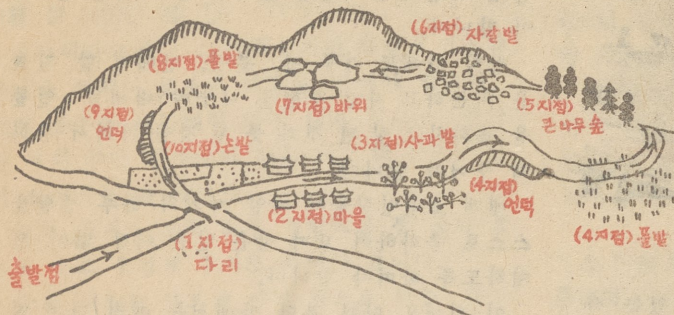
이 외에도 단과 분단, 반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조직할 수 있습니다.

방학은 다만 휴식만 하는 때가 아닙니다.

올해 여름 방학에도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사회주의 건설장에서 더 많이 배우며 더 튼튼히 몸을 단련하여 래일의 훌륭한 사회주의 건설자가 되기 위하여 힘씁시다.

숲속에서 할 수 있는 군사 유희

△ 행군'길을 따라 지형 략도 그리기

이 유희는 방위를 판정하고 략도 그리는 법을 배우는 유희다.

유희 장소는 높은 산'기슭에 바위나 자갈 등이 있고 큰 나무들이 우거진 곳, 풀밭, 개울물 같은 것 등이 있는 복잡한 지형을 정하는 것이 좋다.

준비 할 것은 두 개의 라침판과 매개 유희자들이 쓸 종이와 연필이다.

유희는 분단 별 또는 반별로 할 수 있다.

유희를 시작하기 전에 지도자는 유희자들에게 략도 그리는 법을 알려 준다.

례를 들면 출발선에서 45도 300m 지점에 다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려면 다음과 같이 그린다. 45° 300m

이런 방법으로 행군'길을 따라 돌면서 략도를 그린다. 지형 지물에 대한 표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다.

유희 지도자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행군'길을 한 바퀴 돌면서 100m 어간에 하나씩 행군'길 표식을 해 놓는다. 표식은 백묵으로도 할 수 있고 종이에 그려서 표시할 수도 있다.

표식은 곧바로 가야 할 데는 (→)로, 우로 돌아 가야 할 데는 (↴)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행군'길에는 군데군데 큰 바위나 큰 나무 등의 물체가 있는 곳마다 미리 1에서 10까지 지점을 정해 놓는다.

경기는 각 편에서 한 번에 세 명씩 나온다. (그 중 한 명은 먼저 행군'길을 찾으면서 나가고 한 명은 라침판을 가지고 방위와 거리, 지형 지물을 판정하며 한 명은 판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으며 략도를 그린다.)

유희 준비가 끝나면 시작 신호에 따라 각 편에서 한 조씩 출발한다. 출발한 유희자들은 행군'길을 정확히 따라 돌면서 략도를 그린다.

처음 떠났던 조가 돌아 오면 다음 조가 또 떠난다. 유희는 이렇게 계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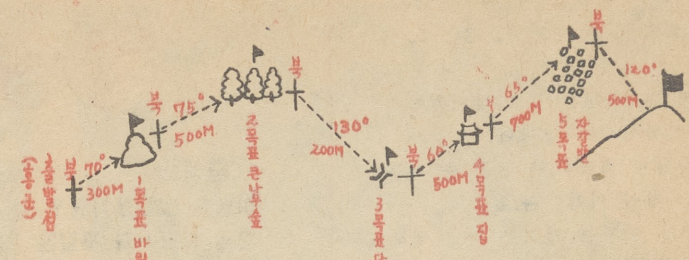
승부는 어느 편이 빨리 행군하면서 정확한 략도를 그렸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기'발 찾아 오기 (략도 찾기)

이 유희는 나지막한 산에서 하는 것이 좋다.

준비할 것은 라침판 두 개, 기'발 두 개, 수기 10 개이다.

경기는 분단 별 또는 반별 경쟁을 하는 것이 좋다. 경기는 홍군, 청군으로 나누어 한다.

유희 지도자는 미리 홍군과 청군이 방위를 판정하면서 기'발을 찾아 가도록 두 개의 장소를 정하여 놓는다.

※ 청군이 찾아 갈 곳도 이런 방법으로 정해 놓는다. (거리는 홍군과 같아야 한다)

유희 준비가 끝나면 홍군과 청군은 출발점에 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린다.

이 때 유희 지도자는 두 편에게 각각 제 1 목표로 가는 방향과 거리를 알려 준다.

출발 신호가 나면 두 편은 각각 라침판으로 방위를 판정하고 1 목표를 찾아 간다. 1 목표에 가면 2 목표로 가는 방향과 거리가 적혀 있는 종이가 놓여 있다. 유희자들은 이것을 보고 2 목표를 찾아 간다. 이렇게 하여 먼저 다섯 목표를 거쳐 붉은 기'발을 찾아 가지고 출발점에 돌아 오는 편이 이긴다.

(그림)

(놀음)

수'자 따기

이 놀음은 묘준하는 법을 배우는데 아주 흥미 있는 놀음입니다. 이 놀음은 인민반 소년단원들이 하면 좋습니다.

놀음은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편을 갈라서 여럿이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할 물건은 고무공 다섯 개와 그림과 같은 수'자 따기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자 따기판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길이 1m 20cm의 나무 받침'대 두 개를 세우고 길이 3m의 가름'대를 가로 대고 다섯 개의 그림판을 만들어서 접철을 대고 맞춘다. (만드는 방법은 웃 그림을 참고하십시오.)

△노는 방법은 한 명씩 출발선

(흥미 있는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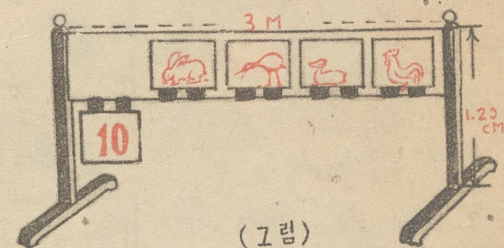
반작용 발동기

동무들은 제비형 비행기를 보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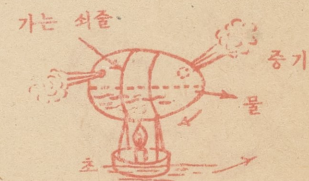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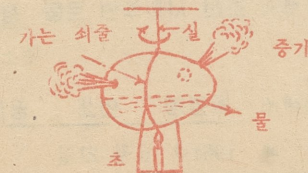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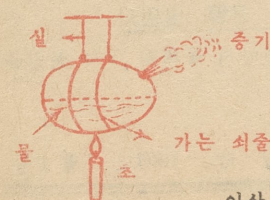
비행기 소리는 머리 우에서 나는데 비행기는 벌써 저 멀리 산을 넘고 있는 것을 말이지요.

얼마나 빠르면 그렇겠어요. 이 비행기는 반작용 원리를 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로페라도 없는데 이렇게 빨리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반작용《발동기》를 만들어서 반작용 원리를 실험해 봅시다.

준비품: 닭알 껍질, 초, 가는 쇠줄.

(1) 앞으로 전진하는 반작용《발동기》

(2) 뱅글뱅글 돌아 가는 반작용《발동기》

(3) 물 우에서 뱅글뱅글 돌아 가는 반작용《발동기》

이상과 같은 반작용 원리를 리용해서 나는 비행기, 달리는 배를 만들어 봅시다.

에 나가 서서 수'자 따기판에 그려 있는 동물 1, 2, 3, 4, 5 순서로 공을 던져서 맞힙니다. 그러면 맞은 판은 뒤로 젖혀지면서 수'자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많은 수'자를 얻는 편이 이깁니다.

공을 던지는 거리는 학년 별에 따라서 적당히 정할 수 있는데 대체로 5m가 가장 좋습니다.

솔'방울로 놀이'감 만들기

1. 부엉이, 토끼, 고양이는 마분지 같은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서 작은 못으로 그림과 같은 위치에 박는다.

2. 금붕어 꼬리는 종이를 사용하고 눈은 아주 작은 솔'방울을 붙인다.

3. 다람쥐—도토리와 솔'방울을 가지고 만든다. 도토리로 그림과 같이 머리를 만들어 박고 종이로 귀를 만들어 붙인 다음 꼬리를 붙이고 종이로 앞발과 뒤'발을 만들어 붙인다.

현상 ?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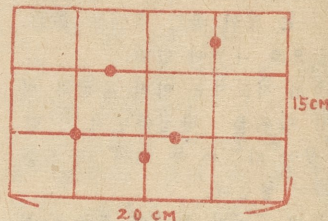
(중등반)

어떻게 달렸을가요?

모양과 크기가 꼭같은 27개의 구슬알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한 개는 다른 것들보다 무게가 좀 무겁습니다.

천평(저울)으로 세 번 달라서 그 무거운 구슬알을 찾아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가요?

(인민반)

다음 그림의 다섯 개 점을 통과하면서 적당한 동물의 그림을 그리시오.

5 호 현상 문제 해답

(중등반)

고원 소년 빨찌산
영흥 소년 빨찌산
고성 소년 빨찌산
김화 소년 근위대
《피끌새 소년 빨찌산》
안주 탄광 소년 근위대

이 외에도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원쑤놈들과 용감히 싸워 이긴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있습니다.

(인민반)

밤 12시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뜰 수 없습니다.

5 호 현상 문제 당선자

(중등반)

평북도 룡천군 룡연 중학교 리 병숙
평양시 동대원 구역 랭천 중학교 김 상묵
함남도 수동군 덕사 중학교 리 창익
함남도 홍원군 룡포 중학교 유 상복
평남도 순천군 봉학 중학교 로 원식
강원도 안변군 과평 중학교 함 상철
평남도 개천군 준혁 중학교 김 상균

(인민반)

함남 영흥군 룡흥 중학교 신 응윤
평양시 문신 중학교 한 동철
평남도 북창군 광로 중학교 박 창순
평북도 동창군 대동 중학교 김 명희
평남도 성천군 장림 인민 학교 오 윤택
함흥시 신풍 중학교 림 금복
개성지구 장풍군 랭정 인민 학교 민 원기
황북도 서흥군 가창 중학교 신 복군
강원도 철원군 마장 중학교 김 윤화

잡지명 소년단 제 7 호 (루계 177 호)

편집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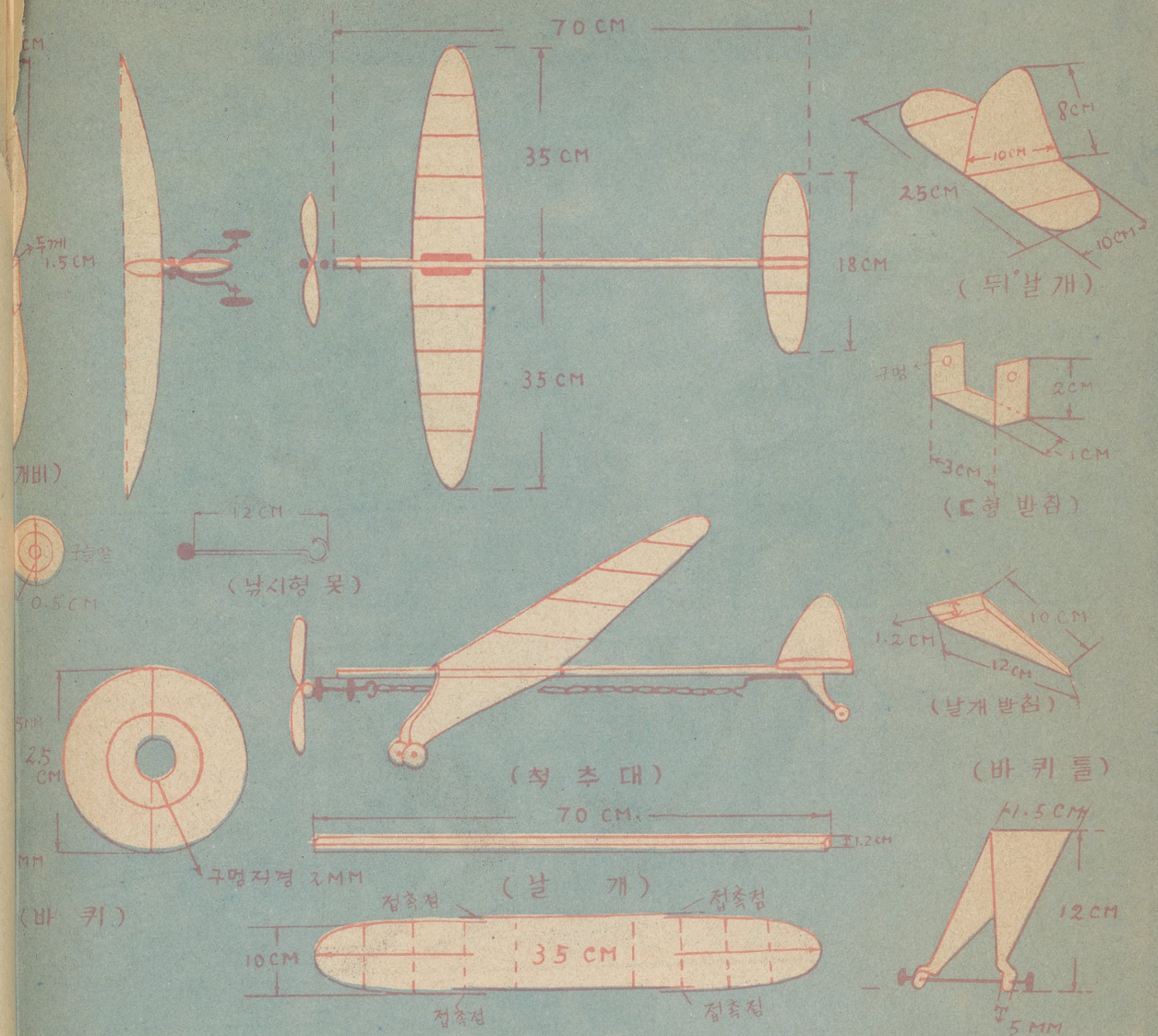
발행소 조선 사회주의 로동 청년 동맹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인 쇄 1964년 6월 21일 발 행 1964년 7월 1일

ㄱ—430322 값 35 전

모형 비행기 만들기

70 CM
35 CM
35 CM
18CM
1.5CM
(뒤'날개)
8CM
10CM
25CM
(ㄷ형 받침)
2CM
3CM
1CM
12CM
(낚시형 못)
0.5CM
(척 추 대)
(날개 받침)
10 CM
1.2CM
12CM
(바 퀴 틀)
1.5CM
12CM
5MM
70 CM
1.2CM
구멍직경 2MM
(바 퀴)
(날 개)
접촉점
10CM
35 CM
접촉점
접촉점
접촉점

비행기를 만들려면 나무(오동나무, 나무 등 가벼운 나무와 싸리나무), 얇 양철판(통조림통), 쇠줄, 고무줄, 을 준비 해야한다.

드는 방법:

척추대를 오동나무 또는 뽀뿌라나무 나게 그림의 규격대로 깎는다.

바람개비는 길이 25 cm, 넓이 3 cm, 2 cm 되는 나무로 그림의 규격대로 . 바람개비를 다 깎은 다음에는 그 쇠줄로 만든 낚시형 못을 꽂는다. 쇠 낚시형으로 구부리기 전에 구슬알(구 대신 작은 주산알도 된다.)을 끼우고 으로 구부린다.

를 만들려면 싸리나무 또는 참대로 1.5 - 2 mm 정도로 가늘게 깎고 그 것을 불에 달구면서 서서히 날개 형태로 구부린 다음 접점을 실로 잡아 매고 그 곳을 초를 녹여 붙인다. 그후 날개를 척추대에 붙인다. 그리고 가름대를 그림과 같이 대고 얇은 종이를 붙인다.

바퀴는 직경 3 cm 되는 통나무를 톱으로 잘라서 그림의 규격대로 깎는다.

바퀴 틀은 양철판을 오려 내여 그림과 같이 만들고 틀에 쇠줄을 끼운 다음 그쇠줄에 두 개의 바퀴를 끼운다.

고무줄은 바람개비에 끼운 낚시형 갈구리와 뒤'날개에 있는 뒤'바퀴 틀과 련결된 낚시형 고리에 련결한다.

뒤'날개는 앞날개를 만드는 방법으로 그림의 규격대로 만들고 척추대에 련결한다.

ㄷ형 받침은 바람개비가 잘 돌도록 구슬알을 받쳐준다.

이것은 아연판 또는 양철판으로 그림의 규격대로 만든다.

날개 받침은 앞날개를 척추대와 련결 할 때 날개의 앞 부분을 약간 높여 주는데 끼운다.

이상 부분별 조립이 끝나면 그것을 순서로 맞추어 완전한 모형 비행기를 만든다.

△날리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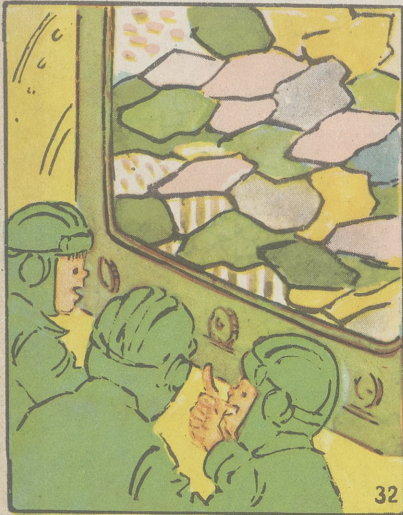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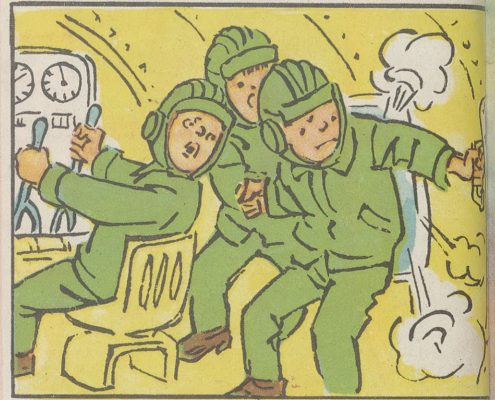
왼 손으로 모형 비행기 척추대 밑 부분을 잡고 오른 손 둘째 손가락으로 바람개비를 여러번 돌린 다음 왼 손으로 뒤'꼬리를 잡고 날린다.

정기 간행물
번호 제13454 호

과학환상만화

땅속의 보물을 찾아서

제9회

글 안형룡　　그림 안창수

㉜ 그들은 20000 메터 깊이부터는 다음 번에 관찰하기로 하고 15000 메터에는 어떤 암석들이 있는 가를 보기로했다. 창남이는 암석을 채집하였고 명숙이는 텔레비죤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영사막에는 화강암, 현무암, 등이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하여 변해진 변성암의 구조가 나타났다.

㉝ (지상으로 올라 가면서 아직 … 견 못한 석유를 비롯한 여러 … 를 찾아 내자)

창남이는 차를 몰며 이렇게 … 각했다. 명숙이와 관식의 마…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 … 메터 앞에 이상한 층이 있다는 … 을 속도기록계가 가리켰다.

《뭘, 무서울 것이 있니? 내가 … 담하게 몰아 볼가.》

관식이가 운전대를 빼앗다시… 잡았다. 이때였다. 《쿵》, 요란… 소리가 나더니 차가 뒹굴고 있는 … 같았다.

창남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 진 창문으로 뜨거운 까스가 … 소리를 내며 들어 오고 있었다. … 남이는 생각할 사이없이 몸으로 … 았다.

㉞ 그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명숙이는 도대체 어떤 곳에 빠졌는 가를 알려고 창문으로 밖을 내다 보았다.

㉟ 창남이는 이 공간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보았다. 창남이는 드디여 이 공간은 암장이 식으면서 체적이 작아지니까 생긴 것이라 했다. 관입암은 아직 뜨거웠으나 관입암 주변의 암석들은 어느 정도 식어 있었다. 그들은 텔레비죤 현미경으로 관입암도 화강암의 한 종류라는 것을 알았다.

㊱ 차는 벌써 지하 5200 메터 깊이에 까지 올라 왔다. 명숙이는 5200 메터 깊이에서 온도를 알려고 온도계 앞으로 갔다. 온도는 150 도였다.

《뭘 온도계를 보고야 알겠니. 33 메터씩 들어 감에 따라 1 도씩 높아 지니 알 수 있잖니.》 관식이가 비웃듯 말했다.

《넌 1500 메터까지는 33 메터씩 들어 감에 1 도씩 높아 지지만 1500 메터 이상 부터는 차츰 커진다고 하던 선생님의 말씀을 벌써 잊었느냐?》

명숙의 말에 관식이는 뒤통수만 벅벅 긁고 있었다.

(다음 호에 계속)